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

나눔

2017 SPRING Vol.370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CONTENTS

카리타스 메시지 04
사랑으로 하나되는
2017년을 맞이하는 자리

카리타스 이정표 06
2017년 서울가톨릭사회복지의
방향성

카리타스와 사회복지 12
CS(Caritas Seoul)노인통합사례관리
알아보기①

카리타스 이야기 16
함께 나누고 싶은 카리타스 이야기

카리타스 공동체 20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분야별대표협의회 소개

카리타스 살림살이 22
2016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결산서

카리타스 나눔살이 28
서울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미니 인터뷰

Yes, I Do 32
DO CAT과 함께하는 사회교리

Mission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헌신합니다.

Vision

-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사회복지 기관
- 본당 중심의 지역사회 발전을 지향하는
  교구 사회복지회
- 미래 사회복지를 선도하는
  전문 사회복지 기관
-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네트워크 기관

Caritas

사랑(愛), 애덕(愛德), 자선(慈善)이라는 뜻의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계명인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2017 SPRING <나눔+>

발행일 2017년 3월 25일
발행인 유경촌
발행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층
전화 02-776-1314
팩스 02-754-5636
홈페이지 www.caritasseoul.or.kr/bokji
기획 편집 교육 홍보팀 송새암 02-727-2256
디자인 디자인수다 02-3446-5202
인쇄 연합프로세스

2017년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일정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에서 주최하는 사회적약자미사에 초대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저녁 7시, 명동대성당

3.3

담당 정의평화위원회
주제 "라자로가 여전히 우리들의 집 문 앞에 누워 있다면(루카 16,19-21) 정의나 사회적 평화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종 프란치스코)

4.27

담당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주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caritas christi urget nos) (2코린 5, 14)

5.25

담당 노동사목위원회
주제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요한 5, 17)

6.29

담당 빈민사목위원회
주제 집 없는 그리스도를 가까이 모시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7.27

담당 노인복지위원회
주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마태 20, 28)

8.31

담당 환경사목위원회
주제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신명 30, 19) 탈핵과 재생에너지

9.28

담당 단중독사목위원회, 한국중독연구재단
주제 "중독으로부터 새 삶을"

10.26

담당 경찰사목위원회
주제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필리피 4, 5)

11.30

담당 사회사목국
주제 미정

12.28

담당 이주사목위원회
주제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으니, 이방인의 심정을 알지 않느냐? (탈출기 23;9)

사랑으로 **하나**되는 2017년을 맞이하는 자리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 담당 교구장대리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이사장
유경촌 티모테오 주교

한 해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유경촌 티모테오 주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애써주신 카리타스 가족 여러분들의 수고에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활동과 일이 주님께 가는 좋은 길잡이의 과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사회복지에 관한 세상의 이목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예리한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가톨릭사회복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내 활동이 그 정신에 맞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활동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늘 던져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부족함을 항상 주님 앞에 인정하고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깨어 있는 마음으로 살피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잘못과 오류들이 모르는 새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양심 안에서 늘 경청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회복지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의지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올해 서울대교구의 사목교서 주제는 '미사는 새로운 복음화의 중심'입니다. 말씀으로 시작되고, 기도로 자라나고, 교회의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이 이제 드디어 미사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느님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하나되어야 하겠지요. 또한, 우리는 이웃 중에서도 소외되고 홀로 살아가기 힘든 그런 분들과 더 각별히 하나 되려고 애써야 하겠습니다. 사람과만 하나 되어야 할까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다른 동식물을 포함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세상과도 하나 되어야 하는 요구가, 바로 미사로 하나되는 신앙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하나 됨이 가능하려면 먼저 내 자신과의 일치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만들어주신 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일치함은 결국 미사 안에서 하느님과, 이웃과, 세상과 하나 될 수 있는 체험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미사 중 하나 됨의 신비를 가장 강렬하게 표현해주는 것이 성체성사입니다. 이 성체성사의 신비를 통해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된다는 참으로 귀한 사실을 마음에 되새기게 됩니다. 미사가 주제인 올 한 해는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매 미사 때 마다 영성체를 통해 우리 몸 안에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과 일치하는 신비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성체성사가 얼마나 고맙고도 위대한 하느님 사랑의 선물인가 하는 점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부디 올 한해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비와 은총으로, 영적인 풍요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세상 속 불의와 폭력과 파괴가 만연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눈을 감거나 방치하고, 미움이나 극심한 가난이나 고통이 만연하는 현실을 외면하며 하늘만 쳐다보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라는 것입니다. 성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2003년에 발표하신 회칙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20항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즉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기대가 현대세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오히려 증대시킨다.' 하느님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일수록 이 세상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하고, 실천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가 만연할수록 더욱 더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보시니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힘을 모으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체성사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차원이며 특성입니다. 주님은 나 자신하고만 하나 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과도, 다른 피조물과도, 이 세상과도,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그 세상을 위해서 당신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과도, 이 사회와도 관심을 가지고 그 현실의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안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행하는 그 신비의 힘으로, 즉 성체성사의 위대한 힘으로 인간존엄에 위배되는 모든 상황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늘 난민들이나 실향민들, 가난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처지를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일깨우시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그 신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히 요구되어지는 관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의무를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환기시켜주고 또 필요한 정보들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기반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회교리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불의나 폭력이나 파괴, 그런 일상적인 부조리의 모습이 결국은 다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결국은 종합적인 이해와 식견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전체적인 이해를 돕는 사회교리가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투신할 때에, 올 해 성체성사와 미사성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의 신비가 실제로 삶 안에서 깊이 체험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 성체성사를 모시는 것 자체가 즐거워 질 것입니다. 혹여, '나 하나 한다고 해서 세상이 하루아침에 달라지겠어?' 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찬미 받으소서> 211항에서 '우리의 사소한 노력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사소한 노력 하나도 결국은 그것들이 모아져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가족 및 후원자, 자원봉사자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수고와 봉사의 땀이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매 미사 때마다 강복해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각오와 결심을 미사를 통해 주님께 봉헌하기로 합시다.

카리타스 이정표

2017년 서울가톨릭사회복지의 방향성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2017년도 사목교서 주제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 – 미사는 새로운 복음화의 중심'**을 정하였습니다. 2014년도부터 말씀으로 시작되어, 기도로 자라나며, 교회의 가르침으로 다져진 신앙강화의 여정을 걸어온 교구는 올해 '미사로 하나가 되는 신앙의 해'를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구장은 사목교서 전문에서 미사전례의 핵심이자 교회 일치의 원천이며, 친교의 공현인 성체성사의 삶을 함께 살아가자고 교구민 모두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 "미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복음화의 열정을 재발견하고, 교회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인 성체성사가 우리의 삶과 복음화의 중심임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미사전례 안에서 체험하는 하느님의 깊은 사랑은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도록 파견한다. 우리 교구가 미사로 하나 되어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임을 함께 느끼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 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 - 2017 서울대교구 교구장 사목교서 중 "

이에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속한 사회사목국도 교구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2017년도 세부사목지침을 정하였습니다. 성체는 사랑과 연대와 자선을 일깨우는 배움터이며, 성찬례 안에서 힘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모든 이들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특히 가난한 이들과 소외되고 차별 받는 이들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떼어 나누게 됩니다. 이에 대한 사회사목국 세부사목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 사회사목국 세부사목지침

1

저임금, 불안한 고용, 위험한 사업장 안에서 노동의 가치가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노동은 인간 존엄성의 문제이기에 관심을 가져야함

2

미사는 주님과의 일치 안에서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니 백세 시대를 맞이하여 본당 구역 내의 양로원, 요양원, 노인전문병원, 노인데이케어센터 등 노인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영적 돌봄과 봉사를 통해 어르신들과 시설종사자들이 주님과의 일치 안에서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 행복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지역, 지구, 본당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함

3

중독자들의 회복은 특히 영적 각성을 통해서 회복됨으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영적 돌봄을 통해 회복함으로써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4

'미사로 하나 되는 신앙의 해'를 맞이하여 정기적으로 지역 내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노인, 청년, 아동, 여성,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수용자와 출소자, 환자 등)을 위한 미사 봉헌과 성체조배를 지속적으로 거행해 주기를 요청함

5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영적, 물적 성장을 위해 자신을 내어 놓아야 한다." 따라서 성체성사의 은총을 받은 신앙인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가이드북을 참조하여 적극 봉사에 임하여 주시고, 서울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교육과 나눔의묵상회 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를 요청함

6

성체성사의 신비는 나눔의 사랑실천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으니 사순시기와 대림시기에 행하는 모금운동과 2차 헌금에 적극 참여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요청함

7

나눔과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학교와 본당 내 사회복지회 소속 사회복지시설과의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요청함

8

성찬례는 주님의 식탁에서 빵(생명)을 나누는 것이니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우리농산물을 이용해 도·농간의 일치와 생태계 보존에 함께 나서줄 것을 요청함

9

"우리 각자는 미사성제를 통해 생명을 주는 쪼개진 빵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삶을 쪼개어 나눌 수 있는 힘은 성체성사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교육'과 '자살예방본당릴레이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장기기증희망신청, 조혈모세포기증희망신청, 헌혈'에 적극 동참해 생명수호와 생명나눔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요청함

10

성체성사의 신비는 인간과 생태계를 하나로 연결해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니 작은 일상적 행동으로 피조물 보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고귀한 일이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물을 아껴 쓰며,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음식은 남기지 않으며, 생명체를 사랑으로 돌보고, 불필요한 전등은 끄는 운동을 전개해 주기를 요청함

이에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도 교구의 사목교서와 사회사목국 사목지침에 따라 법인의 사목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2017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목방향

주제

"참다운 공동체,
진정한 형제애, 살아있는 몸"

성구

"빵은 하나이고 우리 모두가
그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니 비록 우리가 여럿이지만
모두 한 몸인 것입니다."
(1코린 19, 17)

슬로건

"우리는 참다운 공동체로써
진정한 형제애를 나누는
살아있는 몸입니다!"

특히 2017년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내적, 외적 새로운 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모색하여 법인의 5대 해결과제를 중심으로 실천사항을 탐색하기 위해 투신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법인과 법인산하 시설은 2017년 교구 사목목표와 사회사목국 세부사목지침을 참조해 법인의 정체성(세상 속의 교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친교의 공동체)에 따라 "우리는 세상 속의 교회(친교의 공동체)로써 참다운 공동체, 진정한 형제애, 살아 있는 몸이 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를 질문해 봄으로써 문제점을 탐색할 것입니다. 발견한 문제점은 하느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이에 따른 시대적 징표를 읽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해결책인 구체적 실천 목표를 모색해 실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내적 복음화'를 이루어 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 실천 목표는 작년도 사업평가를 통해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 쇄신해야 할 것과 2017년도 사목교서와 사목방향에 따라 새롭게 시도해야 할 것으로 구분해 법인과 각 시설 구성원들이 함께 설정하였고, 이를 위해 법인과 시설이 공동체로써 한 마음, 한 몸을 이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17년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주요 시책

1)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

전체

- 법인과 시설의 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재규정 완비와 교육체계 마련
- 5개의 장학회의 장학금 확보를 위한 노력
- 상호성장과 발전을 위한 순환보직제도에 대한 보완연구
- 이미 완성된 모든 운영매뉴얼(지도점검, 회계, 수탁 등)은 지속적으로 보완
- 법인의 정책과 규정 및 동향에 대한 시설과의 소통강화
- 분야별 공동연구 활동과 사회복지 이슈에 대한 아젠다 형성 등을 통한 정책제안의 활성화
- 후원자, 봉사자, 장애인 부모회와의 소통구조 강화를 통한 공동체성 확립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30% 미만은 종결, 31-70% 까지는 보완조건으로 유지, 71-89% 까지는 유지·발전, 90-100% 까지는 고과반영 및 포상

교육홍보팀

- 재해재난을 위한 전국 카리타스 봉사단 조직 및 훈련 강화
- 민관협력(종민협)을 통한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체계 발전
- 국제카리타스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한 가톨릭사회복지운영지표 개발과 시범적용
- 시설종사자 교육에 사회교리 초급, 중급과정 도입 방안연구
- 정체성 확립을 위한 다양한 교수법 개발 필요
- 미션, 비전, 핵심가치, 영성강화 등에 대한 프로그램 지속 발전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30% 미만은 종결, 31-70% 까지는 보완조건으로 유지, 71-89% 까지는 유지·발전, 90-100% 까지는 고과반영 및 포상
- 가톨릭적 인정보상제도의 연구지속
- 온·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기도에 기반한 카리타스 정신고취
- 가톨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과 내실화를 통해 정보와 자원공유를 위한 포털사이트 운영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팀

- 양천구 일용직 근로자 조식지원 '희망밥차'의 운영 안정화에 대한 연구
- 본당과 시설의 연대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체계 수립
- '생애주기별 장애인 시설확충'에 관한 연구
- 장애인 한자리축제를 명동에서 장애인주간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연구
- '사회사목시범본당'의 명칭을 '사회복지사목시범본당'으로 개칭하고, 모델화하기 위한 자료집 발간 준비
- 지구 사회사목 담당사제 회의에 사회사목국 행정실과의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상호도움을 주는 관계로의 발전방안 강구
- '소규모 등록시설지원 사업 운영 매뉴얼' 보완 완성
- CS 노인통합사례관리 모형의 확산을 위한 사업 연구 및 실시
- CS 생명존중문화 만들기 사업의 지속과 확산에 대한 연구와 실시
- '직영, 수탁시설 지도점검 운영 매뉴얼' 보완
- 제 운영 규정의 적용에 대한 지도점검 목록
- 담당시설 행사를 제외한 연 1회 방문 및 방문기록

재무·행정팀

- 법인과 시설의 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재규정 완비와 교육체계 마련

자원봉사센터

- 재해재난을 위한 봉사단 조직 및 훈련 강화
- 시스템 홍보를 통한 본당 등록요원 확충 및 등록요원 교육 강화
- 가톨릭적 인정보상제도의 연구지속
- 전문자원봉사자의 재능기부를 확대하여 시설과의 연계방안 활성화
-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의 활용과 보급
- 가톨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과 내실화를 통해 정보와 자원공유를 위한 포털사이트 운영에 관한 연구

자원개발팀

- 자원개발에 대한 전문자문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 5개의 장학회의 장학금 확보를 위한 노력
- 본당과 시설의 연대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체계 수립
- 가톨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과 내실화를 통해 정보와 자원공유를 위한 포털사이트 운영에 관한 연구

2) 쇄신해야 할 것

전체

-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명확화(ACC 조직문화에 따른 담당제의 발전
- 자기성장 계획서 작성 및 평가에 대한 법인 사무국 직원교육 실시
- 노사협의회 운영의 강화를 통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공동체성 증진

교육홍보팀

-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명확화(ACC 조직문화에 따른 담당제의 발전
- 자기성장 계획서 작성 및 평가에 대한 법인 사무국 직원교육 실시
- 노사협의회 운영의 강화를 통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공동체성 증진
- 나눔의묵상회에 대한 홍보강화와 지속교육과정 개발
- 사회사목분과에 대한 사회복지 교육과정을 사회사목국과 연대해 연구 및 운영
- 담당자의 전문성과 책임성, 역할 증대를 위한 권한에 대한 교육실시
- 영성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영성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방법 연구

사회복지팀

- 권역별, 지구사회복지협의체(시설, 본당 네트워크)의 구성과 활성화 방안연구
- 각 지구 혹은 권역별 내 멘토-멘티 관계를 형성해 소규모시설을 지원

재무·행정팀

- 노사협의회 운영의 강화를 통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공동체성 증진
- '임면보고 서류'의 간소화에 대한 대책마련

자원봉사센터

- 본당 자원봉사실태 조사 및 연구에 대한 재논의 필요

자원개발팀

- 자원개발에 대한 전문자문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3) 새롭게 시도해야 할 것

전체

- 2017년도 교구장 사목교서에 역점을 둔 복지실천
- 나눔과 자선을 통한 공동체성 향상연구
- 법인사무국과 시설과의 연대를 통한 전자결제체계에 대한 연구
- 사회사목국 각 위원회와의 연대를 통한 공동체성과 사업 효율성 증대
-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19:00시 명동성당에서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미사에 참례하기

교육홍보팀

- 본당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연구
-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 2회기 평가를 통한 3회기 방향과 실천지침 마련
- 사회복지사 자기인식프로그램 파일럿테스트 및 매뉴얼 제작(교육홍보팀)
- 인력양성교육체계 중장기계획 수립 및 연구
- 홈페이지 내 미사(성체성사)와 공동체의 일치를 이루어 가는 과정, 나눔의 의미 게재를 통한 콘텐츠 보완 및 운영
- 정체성교육을 위한 강사양성교육 실시

사회복지팀

- 본당과 시설의 연대강화 (지역사회복지 Networking)
- 본당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연구

노인복지위원회

- 가톨릭요양보호사협의회 구성 및 활성화

재무·행정팀

- 법인사무국과 시설과의 연대를 통한 전자결제체계에 대한 연구

자원봉사센터

- 본당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연구 (사회사목국 연계)

자원개발팀

- 후원자 관리체계 구축 및 다양한 자원개발방법 및 실시

2017년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5대 해결과제 및 실천사항

1 정체성확립

정체성 확립을 위해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교육과정을 정리하여 매뉴얼 화

2 영성프로그램의 확산

많은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 배려와 영성 프로그램의 지속 실시

3 의사소통체계 확립

연수 중 분야별, 규모별 모임을 조직해 법인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 마련

4 법인전입금

법인전입금 지원기준의 구체적, 객관적 지침마련

5 협의회 정체성 확립

정책제안과 함께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실천 활동으로 확장

※ 여름호 에서는 2017년도 법인의 방향성에 따른 중점추진사업을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CS(Caritas Seoul) 노인통합사례관리 알아보기①

— 인터뷰: 동작노인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팀 신지원 사회복지사

Q1

기존에 하던 일반사례관리와 지금 실행하고 있는
CS노인통합사례관리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예전 사례관리 양식들을 보면, 질문하고 답하는 형태로 주어진 칸을 채워나가는 질답 형태에 가까워요. 그러다보니 사례관리 대상인 어르신에 대해 깊이 알아간다는 것 보다, 항목에 대한 체크만 하고 넘어가는 단순 정보조사 같은 느낌을 더 많이 받았죠. 기존 사례관리가 CS(Caritas Seoul)노인통합사례관리로 바뀌면서는 좀 달라졌어요. 이전보다 어르신을 알아가는 과정에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어르신을 알아가고, 어르신의 잠재된 능력을 활용하여 필요로 하는 것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일깨워 드릴 수 있어 좋아요.
때론 사례관리 내의 상담 과정만으로도 어르신에게는 치유가 일어나는 순간이 오기도 하지요. 어르신도 상담을 통하여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회복지사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의 위안 등을 얻기 때문이예요. CS노인통합사례관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A라는 문제에 A복지서비스'를 단순지원 한다기 보다, 조금 더 어르신의 욕구에 맞춘 통합지원이 아닌가 싶어요. 어르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활용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과정이기도 하지요. 저희가 어르신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드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즈음에는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고, 일어나는 문제들도 단순하지 않다 보니, 어르신 스스로가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데 차이점이 있는 것 같네요.

Q1

CS노인통합사례관리 중 대상자와 진행되는 상담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상담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조금 더 어르신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어르신들이 가진 문제들을 깊이 있게 나눌 수 있거든요. 또,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상담 중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현상만 보지 않고, 신체적, 심리적, 영적 부분들까지 함께 보려고 노력해요. 이러한 상담태도를 통해 어르신들이 가진 강점을 발견해내어 그것들을 지지하고 그들만이 가진 능력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돕지요. 어르신께서도 '아 내가 할 수 있구나, 문제를 내가 해결해나갈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어르신과 사회복지사가 문제해결 목표를 함께 찾아내고, 그것을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해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전에는 밑반찬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신 어르신의 경우, 그냥 서비스의 지원여부만 결정하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런데 막상 밑반찬 서비스도 필요하시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럴 경우, 저희는 상담을 통해 어르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파악하게 됩니다. 만약 어르신이 부식거리를 사러 나가실 힘이 있으시다면, 스스로 해보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같이 해본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자립하실 수 있도록 같이 해결점을 찾아 가는 거예요.

Q3

CS노인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나요?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신지요?

물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어르신들은 이 사례관리를 통해 '내가 위안받고 있구나, 내 편이 있구나'라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많이 느끼게 되시는 것 같아요. 스스로 해보고자 하는 시도들을 통해 보람도 많이 느끼시고요. 저희는 CS노인통합사례관리를 도입하기 위해 오랜 시간 어르신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해드리는 부분을 교육받았고 훈련하는 과정을 겪었는데, 이런 변화가 있으신 어르신을 보면 그간의 노력이 참 뜻깊어 웃음짓게 되요,

가장 기억나는 케이스는 복지관 관할지역으로 이사 오신지 얼마 안 된 여자 어르신인데요, 이 어르신께서는 몸이 떨리는 신체적 현상에 힘들어 하셨고 그로 인해 외부와의 관계를 맺는 것도 어려워 하셨어요. 주거환경도 복지관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거리와 집안 내에 가득한 곰팡이 때문에 좋지 않은 편이었구요. 그런데 CS노인통합사례관리의 일환으로 상담 및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법들을 함께 모색 해보면서 어르신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왔어요.

저희는 우선 어르신 스스로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누었지요. 예를 들어 주거환경이 좋지 않으시니 '임대주택 알아보기', 대인관계맺음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니 '집주인과의 관계개선 해보기', 복지관에 적응을 어려워 하시니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해보기' 이런 것들이었어요. 어르신께서는 상담 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용기와 힘을 얻으셨고, 실제로 목표를 위해 스스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어르신을 연말에 재상담 하게 되었는데,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표정이 무척 밝아지셨더라고요. 복지관에 적응도 잘 하시고, 친구관계도 넓어지셔서 더 이상 심심하지도 않게 되었지요. 물론 집주인과의 관계도 수월해졌고요. 이러한 어르신의 변화를 바라보며, 도리어 저 자신이 'CS노인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이렇게 변화할 수도 있구나'하고 놀라는 경험을 하였어요.

Q4

CS노인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하시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기존 사례관리 대비 시간이 더 걸리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에요. 계속 계시던 어르신들도 방문 및 모니터링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신규 의뢰건수도 계속해서 들어오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CS노인통합사례관리는 기존 사례관리 대비 업무시간이 두 배정도 더 걸리더라구요. 문제를 복합적으로 분석을 하는 과정들이 있다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CS노인통합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행하면서, 더 체득이 되고 숙련이 되면 시간은 충분히 단축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도 CS노인통합사례관리가 좋은 이유는 어르신 뿐만 아니라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도 전인적인 돌봄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CS노인통합사례관리 일련의 과정 중 '사례회의'라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참여자들의 칭찬과 공감, 지지를 받을 수 있어요. 이때 '나도(사례관리자) 돌봄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업무에 치여 지치는 것이 아니라, 회의결과에 따라 '다음번에 가면 더 나은 상담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거죠. 내가 더 나은 상담자가 되어야 어르신에 대해서 더 나은 돌봄을 할 수 있으니, 나(사례관리자)에 대한 영적돌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때, 나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영적돌봄은 치유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성찰의 기회도 됩니다. 나의 작은 부분도 상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회의를 통해 알게 되니까요.

Q5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총 130여명의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대상자의 구분이 단순, 일반, 집중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단순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도 CS노인통합사례관리의 일환으로 상담 등의 과정들을 거치지만, 집중 대상자들의 축어록처럼 정밀하고 세세한 기록을 남기지는 않고 있어요. 저는 기관과 기관장님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CS노인통합사례관리는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를 도입하는 기관 차원에서 지원과 지지를 해주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거든요. 동작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2017년도 재가복지팀의 사업방향을 사례관리에 집중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등 기관차원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노력 중이예요. 이러한 환경이 조성됨으로 인해 사례관리자들도 어르신과의 상담과 만남에 방점을 두고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아보기!

1

'사례관리'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이용자에게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문제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

'CS(Caritas SEOUL) 영성 및 강점 기반 노인통합사례관리'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인간존엄성, 공동선, 보조성, 연대성, 책무성, 전문성)와 영성 및 강점 관점 원리를 기반으로 CPE(Clinical Pastoral Education) 및 해결중심 실천 기법을 활용하여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이용자가 전인적(신체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지성적, 영성적) 돌봄을 통해 스스로 삶의 변화를 위한 해결책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사례관리자의 영적 성장을 통해 영성에 민감한 사례관리를 실천하는 모델이다.

함께 나누고 싶은 카리타스 이야기

20170102

중곡종합사회복지관 개관 기념미사

강론: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회장 정성환 프란치스코

중곡종합사회복지관의 18번째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18년간 하느님의 축복과 사랑 안에서 일을 해왔기에 나날이 발전해온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 관리도 잘 이루어졌고 프로그램 또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감사드려야 할 분은 하느님이시지만, 진심으로 후원하고 봉사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항상 애써주심에도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나아가, 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신 이용자분들께도 감사와 축하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용자분들은 복지관을 통하여 자신의 삶에 에너지를 불어넣어 활기있게 하고,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나누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모두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한 가족입니다. 이것이 가톨릭교회가 사회복지를 하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12사도를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셨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써 함께 기쁘게 살아가려고 하신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사도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세례를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사도가 됩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성경을 통해 그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사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중곡사회복지관에서 사도로 불리움 받은 그 사명을 완수해나갈 때, 중곡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아름다운 하느님의 공동체로 계속 성장하면서, 주변에 사랑의 향기를 널리널리 펼쳐나갈 것입니다.

중곡종합사회복지관

중곡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은경)은 1999년 1월 개관하여, 지난 2016년부터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인간존중의 가치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행복한 삶에 동행한다'라는 미션 아래, 지역사회(소속본당: 중곡동 / 소속지구: 제8지구 성동-광진) 안에서 여러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아동과 어르신, 가족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아동 중심 지원, 지역주민 중심 지원, 저소득 가정 및 취약계층 통합관리 등 중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및 정보들을 접하시려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04925) 광진구 용마산로 3길 62
www.chunggok.org
Tel) 02-3436-4316 / Fax) 02-453-4317

20170204

어린이집 교육 시작미사

강론: 정성환 프란치스코 신부

어린이집 선생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교육 받으시는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는 가톨릭신자이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종교가 없으신 분도 있을 테지요. 그렇기에 어쩌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미사가 낯설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2017년도 첫 번째 교육을 미사로 시작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는 사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도 상통합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드리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저는 사제로써 함께 미사를 봉헌하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하느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랍니다. 받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축복은 누구에게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지금 이 시간 내가 믿는 종교 안에서 함께 기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하는 태도에서,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우 바쁜 사람들이었지요. 세상에 파견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쳐야 하고, 복을 빌어주어야 했으며, 이를 통해 열매를 맺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요. 실재로 복음에서도, 이러한 일을 할 때에 쉴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바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을 한다는 것에 견주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기를 돌보는 일은 내 자식이어도 참 어려운 일이지요. 결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기를 키울 때가 가장 어렵다고들 이야기 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일을 해내고 계신 여러분들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디 가서 좀 쉬어라." 라고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신 것처럼 '쉬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대목에서, 정작 예수님 자신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니 가엾은 마음이 들어 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속 에는 몰려드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정이 가득 들어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순간은 때론 힘들고 어렵고 지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연민의 정에 의해 쉼도 잊고 군중을 돌보셨듯이,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닮은 연민의 정이 있기에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해를 시작하며, 생활 안에서 종종 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살아가면 여러분들 마음에 또 다른 열정, 연민의 정들이 솟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보육의 길, 그 길이 소중하고 귀중한 길인만큼 걸어 나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이 미사 중에는 동료들, 가족들, 내가 만나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0213

요셉의원이취임 및 이문주프란치스코신부 은퇴미사

강론: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담당 교구장대리 유경촌 주교

오늘 제가 미사를 하는 이 자리는 굉장히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요셉의원 원장 이취임 미사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요셉의원을 맡아주셨던 이문주 프란치스코 신부님의 은퇴미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셉의원이 자리도 좁고 하니 은퇴미사는 명동에 있는 파밀리아 채플에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문주 신부님께서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요셉의원에서 미사 드리는 것이 요셉의원 정신에도 맞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신부님 말씀대로 이 모습이 요셉의원 설립 취지에 맞는, 요셉의원에서 사제로써 공적인 활동을 일단락 지으시는 퇴임미사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뜻에 따라 이 자리에서 미사를 집전하게 된 것이 더 뜻 깊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에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독서에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카인이 시기질투에 빠지지 않고 자기 역할을 다 했다면, 그런 죄악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하느님께서는 왜 내가 드리는 제사는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고 아우의 것만 더 즐겨 받으시는가' 하는 생각은 카인이 스스로 만든 생각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어찌 똑같은 당신의 자녀를 사람처럼 차별해서 하나는 물리치고 하나는 편애를 하셨겠습니까, 이는 하느님이 인간을 차별한 것이 아닌, 카인이 스스로 만든 생각이었고 그로 인해 결국 불행을 자초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마음먹는가'는 이토록 중요합니다. 카인이 자기가 지은 농사를 기꺼이 제사로 봉헌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을 섬겨드리고, 나아가 내 아우 아벨을 사랑해주시고 예뻐해 주시는 하느님께 더 찬미를 드렸다면 불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인류역사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에서도 표징을 요구하는 바리사이들이 등장하는데, 앞대목을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넘쳐나는 표징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빵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병자를 낫게 하고 마귀들린 사람들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서 구해주시지요. 이미 당신이 보여주신 그 표징은 흘러넘칠 정도였는데, 바리사이들은 무엇을 또 달라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결국, 그 바리사이들은 충분하고도 놀라운 표징들 앞에서도 그분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예수님께 얘기를 했던 바리사이들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요셉의원 자체가 이 시대에 하느님 사랑의 표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지요. 주님께서 친히 어려운 이들을 맞아주시고,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어루만져주시고, 그들에게 밥을 주시고, 그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현장, 그곳이 바로 요셉의원입니다. 또한, 이곳은 주님께서 친히 어려운 이가 되어 수발 받으시고, 치료받으시고, 끼니를 때우시고,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으시는 그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요셉의원은 주님사랑이 실현되고 정말 향기가 되어서 우리 모두에서 사랑이 꽃피는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야 말로, 이 병원이야말로, 이 현장이야말로 하느님의 현존의 거룩한 표징임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그 강력한 표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하느님 사랑의 실천을 위한 요청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 요셉의원을 통해서 묵상하고 가슴에 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이 완고한 바리사이들처럼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표징타령이나 하는 사람들처럼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 카인처럼 하느님의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에 빠져 죄를 짓지 않도록 은총을 청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의원이 우리 교회와 사회 안에서 중요 하고,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이들이 더 열심히 요셉의원을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모두의 관심과 참여, 도움이 없이는 이 요셉의원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 것 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참여하고 내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것-은 별개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의원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뜻을 잘 모아서 참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을 돌봄에 헌신함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요셉의원의 향후 모습이 달려있을 것입니다. 그 숙제를 신임 원장님이신 조해붕 신부님께서 풀어봐 주시기를 빌면서, 우리 모두도 기도 안에서 힘을 보태야 겠습니다.

20170306

노숙인복지협의회 설립20주년 기념미사

강론: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담당 교구장대리 유경촌 주교

사람이 낮 동안 일을 많이 하고 고달픈 하루를 보낸다 하더라고, 저녁에 돌아가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사실 우리는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처가 있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지를 조금 바꿔서 생각해보면 들어가 쉴 공간인 거처가 없다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숙인들의 고통과 절망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전에 몇 번의 노숙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카들과 배낭여행을 갔을 때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도 그날 묵을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기차역 한 켠 에서 잠을 자야 했었습니다. 한여름이었는데도 밤이 되니 추워져서 한숨도 자지 못하였습니다. 또, 얼마 전 독일에서 열렸던 세계 청년대회 때도 바깥에서 뜬눈으로 하룻밤을 지내야 했는데 비가 몹시 내려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몇 안되는 노숙 경험이지만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괴로운 기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의, 그리고 우리의 이런 경험은 노숙인들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숙인은 단순히 집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먹을 것, 입을 옷까지-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세가지라고 할 수 있는 의식주 문제가 전혀 보장되어 있기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 고통이 그저 하루 이틀 정도 지속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기약마저 없는 분들이죠. 때문에 노숙인은 교회의 우선적 관심의 대상인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나쁜 것, 부족한 것, 힘든 것은 다 복합적으로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 비유에 나오는 굶주린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나그네인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 그대로가 바로 노숙인의 처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노숙인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처지와도 같다고 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과연 인간에게 있어서 의식주 문제의 해결 없이는 인간다운 삶도 가능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도 제대로 지켜갈 수 없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은 바로 인간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누구나 최소한 생존을 위한 의식주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그들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는 바로 그들의 그러한 권리를 지켜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교황 요한 23세 성인께서는 회칙 지상의 평화 제 11항에서 이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생존 육신 전체 생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의

요셉의원

요셉의원(원장: 조해붕 신부)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이들과 함께 하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직영시설입니다. 내과, 외과, 신경외과, 안과, 피부과, 치과 등 20여개 진료과목을 두고 있으며, 정신적 치유를 위한 음악치료, 인문학 강의, 영화포럼 등을 개설하는 한편, 배고픈 이들에게 무료 급식 제공, 이발, 목욕, 옷 나눔, 쉼터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외된 이들의 자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소 (07306) 영등포구 경인로100길6

www.josephclinic.org

Tel) 02-2634-1760 / Fax) 02-2677-5839

사들의 치료와 그 외 정당한 사회적 봉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인간은, 노동력이 결여되었거나, 과부신분이 되거나, 노환등에 처했거나, 노동력의 결여 과부신분 노환 실업 등에 처했거나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생존방법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것은 이미 60여년전에 요한 23세 성인께서 회칙을 통해 하셨던 말씀입니다. 바로 노숙인들이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들의 처지에 더욱 특별한 관심과 돌봄을 실천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자신과 똑같은 하느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마태오 복음 8장 20절에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 조차 없다…" 그러고 보니 이미 그때 당시부터 예수님은 노숙생활을 3년이나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돈벌이를 하시지 않으셨으니, 먹고 입고 자는 것을 전적으로 사람들의 호의에 의존해서 사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노숙인 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노숙인들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노숙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침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보잘것없는 이와 당신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했는지의 여부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인 우리는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내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한번 창조된 우리 영혼은 죽지 않으며 육신마저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복음은 분명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뒤의 일에 대해 우리는 잘 모를 뿐더러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한가지만은 확실합니다. 죽은 뒤의 나의 모습, 내 운명은 바로 내가 살아있을 때의 모습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심판이라는 시험을 봐야 하는데, 학생이 시험문제를 미리 알고 있으면 치뤄야 할 시험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이미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기준을 예수님으로부터 다 배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심사기준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이란 보통 돈 많고 힘있는 자를 사랑하기 쉬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랑의 대상은 가장 작은 이, 바로 오늘날 얘기하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병들고, 집이 없고, 감옥에 갇혀있고,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인데 누가 그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안하고 사랑하기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는데, 대개 본능을 거스르면서 까지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고 싶어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통상적 우리 사랑의 첫 번째 한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대개 경험하는 사랑은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있는 사람에게 꾸어주는 사랑입니다. 무언가 돌아올 것이 예상되거나,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던지 보상이 있을 때에 사랑하는 사랑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보상 없이 거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그 보상이라는 것이 반드시 물질적인 것만 의미하진 않을 것 입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관대함, 존경이나 동정, 연대 등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보상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웁니다.

세번째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사랑은 내 편일 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편, 내 식구, 내 사람, 또는 나와 이념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적선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중요한 덕목이 있었는데, 단지 이스라엘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방인들은 전혀 사랑할 의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민족이나 종교로 경계를 두지 않으시고 오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바로 그것을 기준 삼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사랑하지 않으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사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카테고리를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 사랑을 내 식대로 해석하여 거기에 머무르지 않을 것인가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위한 예습을 철저히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오늘 노숙인복지협의회 20주년 미사를 드리고 있는 이 '토마스의 집'에서는 매일같이 400-500명 정도의 노숙인 분들이 이곳에서 한끼 끼니를 때우고 가신다고 합니다. 무료급식 조리와 배식을 위해 매일같이 15-20명 정도의 봉사자들이 오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고 그저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바로 그 사랑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또한, '토마스의 집'뿐만 아니라 서울가톨릭노숙인복지협의회 산하 17개 시설에서 펼쳐온 바로 그 일이, 우리 식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 여러분, '조건 없이 열려있는 사랑'을 '무한정 실천'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노숙인복지협의회 활동이 20년을 나름대로 결산해보고 되돌아보고 기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뜻 깊은 일이고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사랑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인간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 안으로부터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을 때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일도 올바른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겸손되이 기도하면서 조건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청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이 앞으로 더욱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행동과 실천으로 그분처럼 살아가고, 또 그분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고 그러한 교회로 변화되어갈 수 있도록 미사 중에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분야별대표협의회 소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270개 시설들은 영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 전 분야를 총 망라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각 분야들(영아, 아동·청소년, 여성, 장년,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 주거, 탈북민 등)은 각각 주관하는 정부 부서가 다르고, 분야별 전문/특화 되어 있기에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는 사회복지 분야를 구분하여 범주화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유아·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어린이집협의회, 지역아동센터공부방 협의회, 아동.청소년 그룹홈 협의회"를 구성하고, 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협의회, 지적장애인시설협의회, 장애인복지관협의회"를, 여성을 중심으로 한 "여성복지협의회", 노숙인을 위한 "노숙인복지협의회", 노인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협의회, 노인복지시설협의회, 데이케어협의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종합사회복지관협의회",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의료복지협의회", 이렇게 총 14개 분야별협의회를 두었습니다. 각 분야별 협의회들은 정보를 교환, 교육을 통한 전문성과 역량 증대, 정책 건의 등 분야 고유성을 살려 특화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분야로 흩어진 형태의 협의회로는 가톨릭사회복지 정체성과 미션, 비전, 핵심가치들을 펼쳐 나가기에는 힘에 부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한 분야에서 정책을 변화시키고 복지실천가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에는 역부족한 부분들이 있음을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2001년, 각 분야별 협의회의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 분야별 대표협의회(구 분야별대표자협의회)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분야별대표협의회는 연대성과 보조성을 기반으로 사회복지 공동선을 이루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Mini Interview

분야별대표협의회 회장 인사말

“ 안녕하십니까? 등촌7종합사회복지관장 이철우입니다. 제가 2017년과 2018년의 2년 동안 분야별대표협의회 회장의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역량이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임무를 주셔서 고민은 되지만 누군가 해야 한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14개 분야별 협의회 회장님들과 논의하면서 발전하는 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2017년 서울 가톨릭사회복지 분야별대표협의회 명단

협의회 명	임원			
	직책	성명 세례명	연락처	소속 시설명
분야별대표자협의회 임원	회장: 이철우 요한보스코 / 부회장: 홍흥근 프란치스코 / 총무: Sr.김정숙 루시아			
서울가톨릭어린이집협의회	회장	이혜배 모니카	02.2651.6055	목동어린이집
	부회장	염경숙 안젤라	02.2682.2121	해뜨락어린이집
서울가톨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회장	최보경 루시아	02.868.3117	꿈나무지역아동센터
	부회장	홍예진 마리안나	02.884.8093	우리들의 공부방
서울가톨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회장	김영숙 글로리아	02.664.8541	살레시오원미동나눔의집
	부회장	이영해 마리안나	02.2963.68111	살레시오신월3동나눔의집
서울가톨릭장애인복지협의회	회장	홍흥근 프란치스코	02.3661.0326	강서구립직업재활센터
	부회장	윤재송 시몬	02.451.0333	서울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
서울가톨릭지적장애인시설협의회	회장	홍흥근 프란치스코	02.3661.0326	강서구립직업재활센터
	부회장	박상호	02.887.3629	꿈손단기보호센터
서울가톨릭장애인복지관협의회	회장	허명환 미카엘	02.445.8006	강남장애인종합복지관
	부회장	Sr.김진영 골롬바	02.3411.9581	성모자애복지관
서울가톨릭여성복지협의회	회장	Sr.김정숙 루시아	02.826.3274	마인하우스
	부회장	박옥순 아나스타시아	02.704.8382	막달레나의 집
서울가톨릭노숙인복지협의회	회장	Sr이향배 필립보	02.3156.6300	시립은평의마을
	부회장	한안수 골롬바	02.495.2517	사랑의집
서울가톨릭노인종합복지관협의회	회장	김광수 베드로	02.2298.5117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부회장	-	-	-
서울가톨릭노인시설협의회	회장	Sr.전영미 짓다	02.825.7151	성심의집치매노인요양센터
	부회장	Sr.백영미 시몬	02.582.6004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
서울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협의회	회장	이철우 요한 보스꼬	02.2658.6521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총무	노명래 프란치스코	02.814.8114	동작종합사회복지관
서울가톨릭의료복지협의회	회장	Br.김한식 토마스	02.3156.64007	시립은혜로운집
	부회장	Sr.권오열 글라라	02.351.2300	도티기념병원
	총무	한동호 베네딕도	02.2636.2476	요셉의원
서울가톨릭데이케어협의회	회장	신경란 루시아	02.2282.3874	왕십리데이케어센터
	부회장	Sr.최명희 데레사	02.2695.1626	양천데이케어센터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지도신부	Fr.정성환 프란치스코	02.727.2260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간사	안순봉 빠울리노	02.727.2242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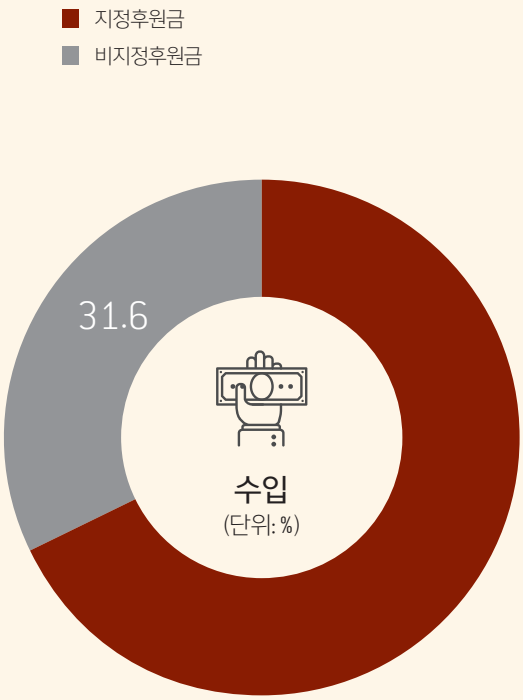
2016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결산서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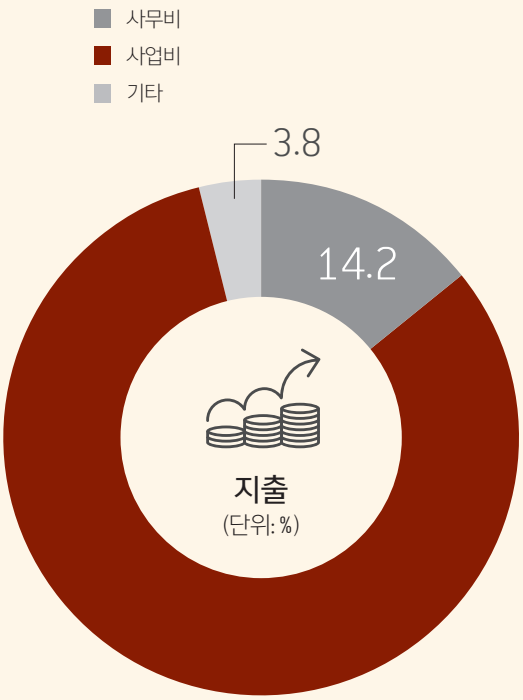
세입					
관	항	2016년 3차 추경예산(A)	2016년 결산(B)	차액(A-B)	
				금액	달성율
총계		6,590,559	6,949,307	-358,748	105.4
재산수입	기본재산수입	59,108	59,159	-51	100.1
사업수입	교육사업수입	41,825	40,900	925	97.8
과년도수입	과년도 수입	4,158	4,256	-98	102.4
보조금	보조금수입	233,000	232,760	240	99.9
전입금	교구전입금	2,381,935	2,455,454	-73,519	103.1
후원금	소계	2,142,838	2,433,400	-290,562	113.6
	지정후원금	1,539,213	1,665,465	-126,252	108.2
	비지정후원금	603,625	767,935	-164,310	127.2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1,639,315	1,639,315	0	100.0
잡수입	기타잡수입	88,380	84,062	4,318	95.1

세출					
관	항	2016년 3차 추경예산(A)	2016년 결산(B)	차액(A-B)	
				금액	달성율
총계		6,590,559	6,949,307	-358,748	105.4
사무비	소 계	1,346,259	1,220,533	125,726	90.7
	인건비	952,233	942,988	9,245	99.0
	업무추진비	14,750	10,946	3,804	74.2
	관리운영비	379,276	266,600	112,676	70.3
재산조성비	시설비 등	160,357	29,305	131,053	18.3
사업비	소 계	1,925,930	1,809,939	115,991	94.0
	사회복지사업비	1,587,681	1,532,692	54,989	96.5
	교육연구사업비	180,302	149,380	30,922	82.8
	모금사업비	109,302	92,877	16,425	85.0
	자원봉사센터사업비	38,645	34,990	3,655	90.5
	재해복구사업비	10,000	-	10,000	0.0
잡지출	잡지출	66,000	65,574	426	99.4
상환금	부채원리금상환	80,685	26,305	54,380	32.6
시설전출금	소 계	1,571,109	1,560,459	10,650	99.3
	종합복지	316,000	316,000	0	100.0
	노인복지	268,106	268,106	0	100.0
	장애인 복지	292,203	292,203	0	100.0
	아동 복지	185,400	185,400	0	100.0
	노숙인,여성 및 기타	509,400	498,750	10,650	97.9
예비비및기타	반환금 및 이월금	1,440,219	2,237,193	-796,974	155.3

2016년 후원금 수입 내역



2016년 후원금 지출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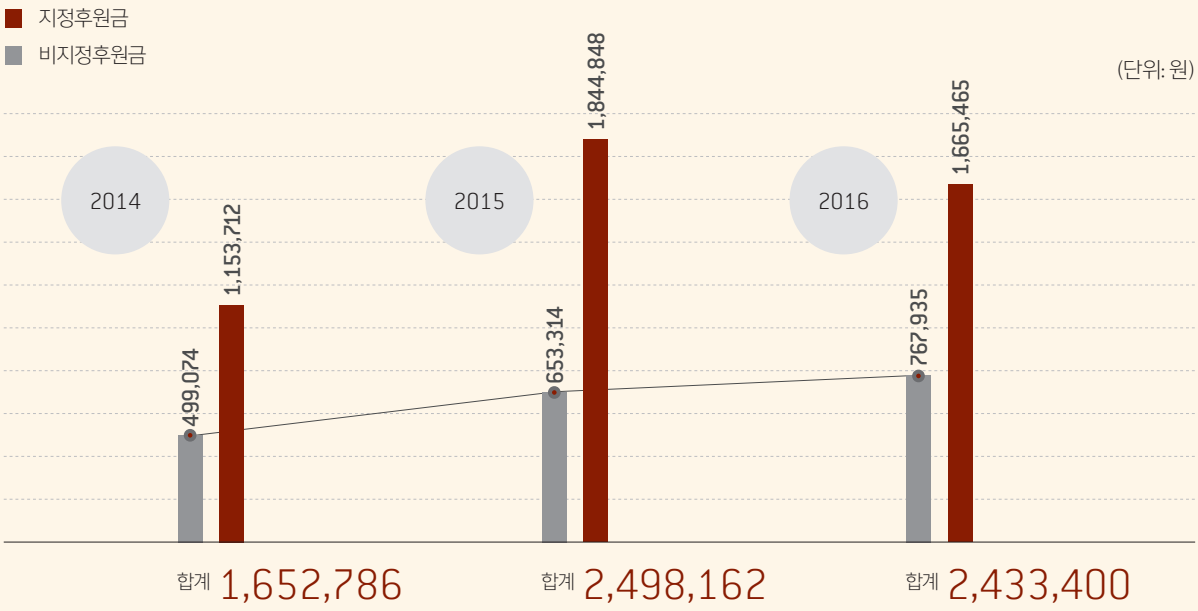


2016년 후원금 수입 · 지출 내역					
구분	수입 과목	금액	구분	지출 과목	금액
지정 후원금	한마음한몸지원금	530,000,000	사무비	사무비 및 운영비	260,073,298
	장학사업후원금	205,579,607	사업비	본당사회복지사업비	168,907,260
	좋은이웃따뜻한나눔	466,731,699		사회복지분야별 특화사업	79,329,798
	시설지원지정기탁	202,461,570		사회복지분야별역량강화사업	19,660,000
	공모사업 후원금	167,803,037		사회복지지원사업	204,643,000
	기타지정후원	92,889,260		등록단체운영체계화 사업비	160,000
비지정 후원금	혼배기부후원	30,750,000		지역사회보호및예방	561,772,071
	한끼100원 후원	43,463,330		직영수탁시설운영 사업비	16,000,000
	온라인 후원	5,742,183		교육 및 연구기획사업비	84,226,336
	CMS후원	298,180,400		홍보출판 사업비	33,194,445
	기타 개인후원금	389,799,246		모금 사업비	62,844,060
				자원봉사사업비	33,279,610
				시설전출금	233,583,434
			기타	반환금 등	70,000,000
계		2,433,400,332	계		1,827,673,312

2016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후원분석 보고서

최근 3년간의 후원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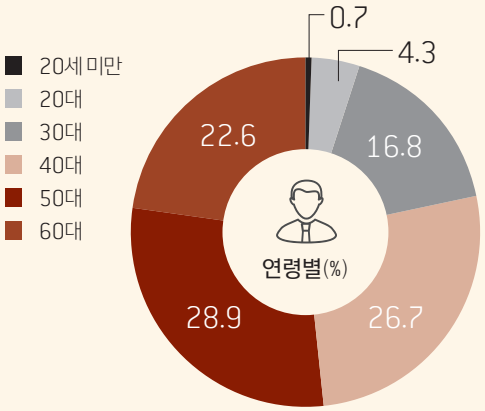
(2014년~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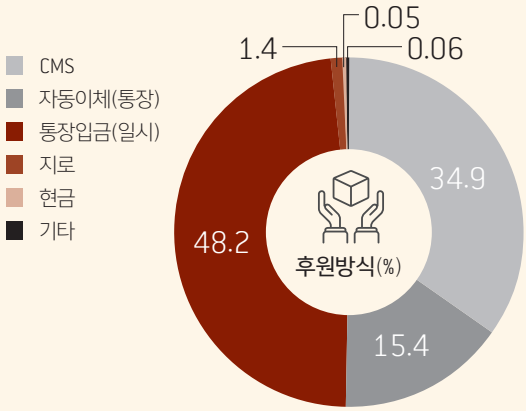
- 매년 비지정후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2015년에는 5개 본당 방문모금을 통하여 CMS후원이 많이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축복미(쌀화환) 기부 연계성당이 확대되었고, 2016년에는 일시 고액기부가 증가하였습니다.
- 교구 홍보국과 연계하여 실시한 서울주보 「좋은이웃, 따뜻한 나눔」사업으로 약 5억 8천만원의 지정후원금이 모금되어 사연이 소개된 각 시설 및 대상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 2017년에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지정후원 중단, 서울주보 「좋은 이웃, 따뜻한 나눔」 사업종료로 전년도 대비 지정후원금감소가 예상됩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후원분석 보고서

(2016.1.1.~2016.12.31.기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후원자님들의 연령을 분석해보면, 50대가 가장 많고(28.9%) 그 다음 40대(26.7), 60대(22.6%)순으로 중장년층의 후원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MS를 사용하는 비율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서울주보 좋은이웃, 따뜻한 나눔사업에 일시후원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원분야

(단위: 명)

CMS,계좌이체 등
2,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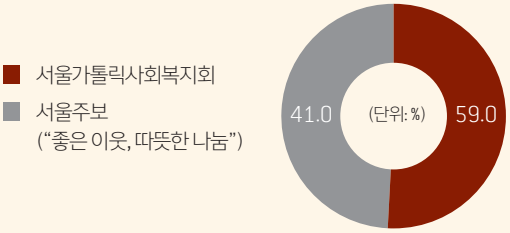
대림사순
372

한끼100원
192

장학회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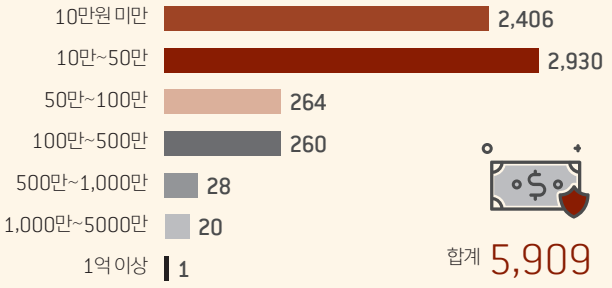
지정기부
88

축복미
213



후원 분야 중에서는 특정 시기(대림, 사순)나 프로그램(한끼 100원 나누기, 축복미 등)후원 보다는 CMS와 계좌이체를 통한 후원이 많았습니다. 2016년도에 주목할만한 점은, 서울대교구 홍보국과 함께 진행했던 서울주보의 "좋은 이웃, 따뜻한 나눔"을 통한 후원이 전체 후원금의 절반에 가까운 압도적 비율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기분 좋은 시너지가 아닐 수 없네요 :) 추후에도 유관기관이나 산하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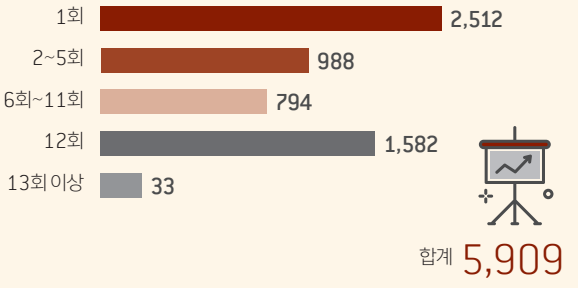
연간 총후원금액



합계 5,909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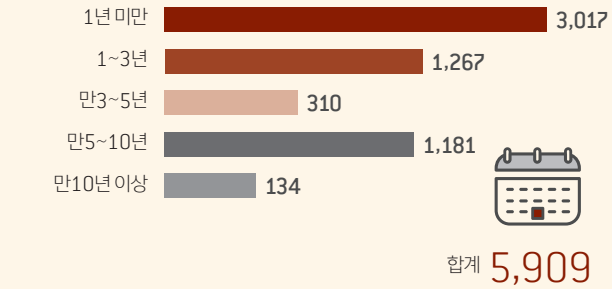
연간 후원횟수



합계 5,909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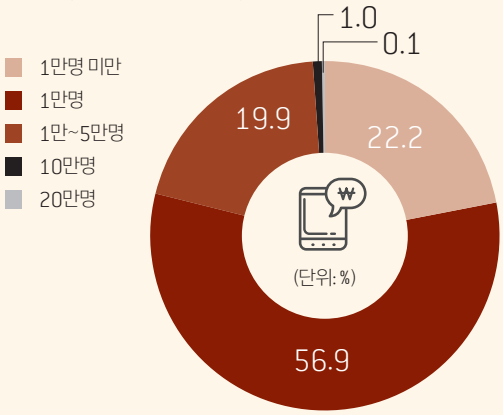
후원기간



합계 5,909

(단위: 명)

CMS정기후원자 현황



2016년 한 해 동안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2017년도에도 모든 인간이 존엄함을 잃지 않도록 서울지역 내 법인 산하 가톨릭사회복지시설 및 본당과 연대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프로그램 소개

사순절 모금
"사랑으로 가진바를 나누자"

1977년 1월 인성회(인성회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인성회'의 약칭)는 진정한 참회와 회개의 정신으로 신앙을 쇄신하고 개인적 · 사회적 죄악에 대한 보속하는 의미에서 그 해 사순절부터 전국적으로 '사순절 자선모금'을 실시할 것을 결의하여 이를 주교회의에 건의하였습니다.

2월 18일자로 주교회의의 재가를 받은 인성회는 사순절 셋째 주 금요일에 성직자 · 수도자 · 평신도들이 한 끼 식사를 단식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선사업 기금으로 헌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사순절 자선모금이 실시되었고, 이 때 부터 사순절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1978년 1월 인성회 전국교구대표자회의는 사순절 운동의 주제를 '사랑으로 가진 바를 나누자'로 정하였습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 금요일(4월 7일)을 단식재의 날로 정하고, 주일에 단식을 통한 희생의 몫을 헌금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저금통 및 주님수난성지주일 2차 헌금(4월 9일)을 통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와 함께하는 가톨릭사회복지시설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2016년 사순절 모금액은 아래와 같이 소중히 쓰였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실천에 감사드립니다.

모금내용	수입(원)	모금액 활용	지출(원)
사순절 저금통	123,749,279 454,492,020	노인복지사업지원	81,635,000
주님수난성지주일 2차 헌금		종합복지사업지원	98,500,000
		노숙인복지사업지원	139,781,000
		장애인복지사업지원	79,875,000
		기타사회복지사업 (법인운영비 및 푸드마켓 등)	178,450,299
	578,241,299		**578,241,299**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후원

우리은행 454-000754-13-104
(예금주: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계좌이체 후 연락을 주시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문의 : 02-776-8810

카리타스 가족을 소개합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 후원금과 물품지원으로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실천하신 카리타스는 누군가의 가슴 속에 깊게 뿌리내린 사랑의 나무가 되어 이 사회 곳곳에
아름다운 희망의 열매로 열릴 것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

(주)뉴욕걸즈 / (주)우리은행 가톨릭회관지점 / (주)은행나무출판사 / (주)홍진경 / DC마트

ㄱ

가톨릭신문출판협회 / 가톨릭출판사 / 가회동성당 / 강가네순대국 / 강경식 / 강경애 / 강경화 / 강경희 / 강구세꼬시 / 강귀숙(김민진) / 강규환 / 강금옥 / 강나영 / 강남욱 / 강명희 / 강미원 / 강민형 / 강범구 / 강병권 / 강상용 / 강석기 / 강석렬 / 강성숙 / 강성아 / 강성우 / 강세구 / 강수선 / 강수영 / 강순하 / 강신은 / 강씨네 / 강연아 / 강영명 / 강영석 / 강영숙 / 강예나 / 강용화 / 강우영 / 강웅 / 강원축산 / 강유진 / 강윤진 / 강이경 / 강인구 / 강인숙 / 강일 / 강재순 / 강재연 / 강정석 / 강정현 / 강주언 / 강주영 / 강준모 / 강준호 / 강지영 / 강지원 / 강지흔 / 강진영 / 강진화 / 강풍자 / 강한다울 / 강현경 / 강현숙 / 강혜경 / 강혜경(이동준) / 강혜선 / 강혜숙 / 강혜인 / 강혜진 / 강호진 / 강희 / 강희복 / 강희정 / 갯마을항아리 / 경다히 / 경원집 / 경주상회 / 계성여자고등학교 / 계정란 / 계충순 / 고경민 / 고경숙 / 고광표 / 고금자 / 고도영 / 고명선(배준원) / 고병섭 / 고성자 / 고세욱 / 고송희 / 고승환 / 고안나 / 고영주 / 고원실 / 고윤애 / 고은경 / 고은주 / 고은준 / 고재용 / 고재헌 / 고정수 / 고주현 / 고창숙 / 고혜숙 / 고혜순 / 고혜향 / 골든파파 / 공릉동성당 / 공명훈 / 공세훈 / 공항동성당 / 곽규호 / 곽도희 / 곽맹자 / 곽선영 / 곽성신 / 곽순규 / 곽승옹 / 곽안나(이희원 그레고리오) / 곽정숙 / 곽정현 / 곽청 / 광장동성당 / 광진상회 / 구로1동성당 / 구룡약국 / 구미화 / 구본현 / 구원회 / 구은순 / 구은정 / 구은화 / 구정연 / 구파발성당 / 구희진(조정자) / 구희현 / 국경숙 / 굿모닝약국 / 굿잇츠 / 권구종 / 권귀애 / 권기성 / 권미영 / 권민정 / 권병길 / 권병란 / 권병순 / 권보원 / 권분남 / 권석남 / 권성경 / 권성수 / 권성옥 / 권세정 / 권세희 / 권소현 / 권수미 / 권수정 / 권순효 / 권영민 / 권영범 / 권영신 / 권영조 / 권오삼 / 권오술 / 권용수 / 권윤수 / 권윤희 / 권은경 / 권재현 / 권정숙(베로니카) / 권정은 / 권지수 / 권진택 / 권태근 / 권태봉 / 권태엽 / 권태중 / 권향숙 / 권혁매 / 권현희 / 권혜원 / 권효순 / 권희영 / 그랑데뷰 / 그린마트 / 그린부동산 / 금강화점 / 금정란(안정우다윗) / 금하영 / 기문상 / 기세용 / 길수헌 / 길음동성당 / 김가연 / 김간동 / 김갑산 / 김강숙 / 김강한 / 김강현 / 김건영 / 김건우 / 김경달 / 김경수 / 김경숙 / 김경순 / 김경애 / 김경자 / 김경재 / 김경희 / 김계명 / 김계연 / 김관수 / 김관용 / 김광백 / 김광성 / 김광수 / 김광재 / 김광중 / 김광호 / 김광희 / 김국원 / 김귀남 / 김귀정 / 김규리 / 김규준 / 김근수 / 김금순 리디아 / 김기백 / 김기석 / 김기수 / 김기원 / 김기한 / 김기휘 / 김길웅 / 김길자 / 김나영 / 김난숙 / 김난희 / 김남숙 / 김남용 / 김남정 / 김남진 / 김남효 / 김노은 / 김누리 / 김대기 / 김대우 / 김대호 / 김덕기 / 김덕산 / 김덕선 / 김덕순 / 김덕희 / 김도경 / 김도균 / 김도연 / 김도이 / 김도현 / 김도환 / 김동만 / 김동분 / 김동빈 / 김동신 / 김동우 / 김동주 / 김마리아 / 김만기 / 김만수 / 김만호 / 김말이 / 김명란 / 김명수 / 김명재 / 김명주 / 김명희 / 김묘순 / 김문규 / 김문자 / 김문정 / 김문환 / 김미경 / 김미숙 / 김미순 / 김미애 / 김미연 / 김미영 / 김미옥 / 김미용 / 김미정 / 김미지 / 김미현 / 김미형 / 김미혜 / 김미화 / 김미희 / 김민정 / 김민지 / 김민형 / 김범규 / 김병근 / 김병석 / 김보경 / 김복희 / 김봉기 / 김봉길 / 김봉순 / 김봉재 / 김봉주 / 김삼순 / 김삼옥 / 김상규 / 김상균 / 김상미 / 김상민 / 김상숙 / 김상훈 / 김샛별 / 김서영 / 김서현 / 김석 / 김석구 / 김석철 / 김석호내과 / 김선경 / 김선미 / 김선여 / 김선영 / 김선자 / 김선정(최성환) / 김선종 / 김선진 / 김선창 / 김선태 / 김선화 / 김선희 / 김설희 / 김성구 / 김성미 / 김성민 / 김성분 / 김성선 / 김성숙 / 김성순 / 김성애 / 김성용 / 김성윤 / 김성임 / 김성자 / 김성태 / 김성화 / 김성훈 / 김성희 / 김세훈 / 김소영 / 김소윤 / 김소정 / 김소희 / 김수경 / 김수덕 / 김수민 / 김수연 / 김수영 / 김수정 / 김수진 / 김수현(김효경) / 김숙화 / 김숙희 / 김순복 / 김순옥 / 김순이 / 김순자 / 김순정 / 김순화 / 김순흥 / 김승국 / 김승찬 / 김승호 / 김시영 / 김시옥 / 김시정 / 김실 / 김아람 / 김안나 / 김애경 / 김애자 / 김양경 / 김엘리사벳 / 김여람 / 김여정 / 김연이 / 김연주 / 김연중 / 김연희 / 김영대 / 김영록 / 김영률(김태윤 루치오) / 김영삼 / 김영선 / 김영수 / 김영숙 / 김영순 / 김영식 / 김영실 / 김영심 / 김영옥 / 김영은 / 김영일 / 김영임 / 김영자 / 김영주 / 김영철 / 김영하 / 김영현 / 김영화 / 김영환피부과 / 김영희 / 김예림 / 김예원 / 김예은 / 김예진 / 김옥분 / 김옥선 / 김옥임 / 김요완 / 김용기 / 김용식 / 김용욱 / 김용운 / 김용철 / 김용태 / 김용태(안은령레지나) / 김우리 / 김우진 / 김운용 / 김원경 / 김원식 / 김유경 / 김유숙 / 김유연 / 김유정 / 김유진 / 김유현 / 김윤경 / 김윤상 / 김윤선 / 김윤성 / 김윤수 / 김윤숙 / 김윤정 / 김윤주 / 김윤진 / 김윤희 / 김은경 / 김은대 / 김은령 / 김은록(천용기바오로) / 김은숙 / 김은자 / 김은정 / 김은주 / 김은지 / 김은철 / 김은춘 / 김은현 / 김은희 / 김의정 / 김이웅 / 김익환 / 김인국 / 김인권 / 김인근 / 김인숙 / 김인옥 / 김인환 / 김자영 / 김자은 / 김장환 / 김재곤 / 김재섭 / 김재실 / 김재영 / 김재정 / 김재준 / 김재홍 / 김점숙 / 김점옥 / 김정규 / 김정남 / 김정례 / 김정린 / 김정미 / 김정민 / 김정선 / 김정수 / 김정아 / 김정연 / 김정옥 / 김정왜 / 김정욱 / 김정원 / 김정은 / 김정임 / 김정자 / 김정주 / 김정하 / 김정현 / 김정혜 / 김정화 / 김정환 / 김정훈 / 김정희 / 김제기 / 김종규 / 김종대조혜정 / 김종득 / 김종수 / 김종숙 / 김종순 / 김종옥 / 김종희 / 김주남 / 김주리 / 김주성 / 김주순 / 김주영 / 김주희 / 김준수 / 김준희 / 김중섭 / 김중호 / 김지경 / 김지니 / 김지애 / 김지양 / 김지연 / 김지은 / 김지택 / 김지현 / 김지혜 / 김진경 / 김진권 / 김진숙 / 김진순 / 김진식 / 김진아 / 김진영 / 김진우 / 김진욱 / 김진택 / 김진택(김하늘) / 김진택(송행숙) / 김진호 / 김진휘 / 김찬영 / 김창명 / 김천순 / 김철순 / 김청 / 김춘자 / 김춘정 / 김태백 / 김태식 / 김태연 / 김태영 / 김태윤 / 김태은 / 김태종 / 김태훈 / 김판조닭강정 / 김평숙 / 김하경 / 김하란 / 김학동 / 김학찬 / 김한겸 / 김한수 / 김한식 / 김한중 / 김한춘 / 김해숙 / 김해용 / 김향자 / 김현강 / 김현균 / 김현미 / 김현복 / 김현성 / 김현숙 / 김현승 / 김현아 / 김현재 / 김현정 / 김현조 / 김현혜 / 김형국 / 김형기 / 김형길 / 김형남 / 김형섭 / 김형자 / 김형준 / 김형진 / 김혜례 / 김혜리(김재인) / 김혜수 / 김혜숙 / 김혜영 / 김혜옥 / 김혜원 / 김혜정 / 김혜진 / 김호영 / 김호진 / 김홍길 / 김홍승 / 김홍원 / 김화자 / 김황윤(심월자) / 김효경 / 김효숙 / 김효진 / 김흥수 / 김흥준 / 김희성 / 김희숙 / 김희순 / 김희영 / 김희원 / 김희자 / 김희정 / 김희정(이효진바오로) / 김희진 / 까페하랑 / 꽁블 / 꾸러기어린이집 / 꿀까스

ㄴ

나명상 / 나수미 / 나순임 / 나승아 / 나연희 / 나영석 / 나육영 / 나지영 / 낙원순대 / 낙지마당 / 남경민 / 남계숙 / 남궁유진 / 남다현 / 남도음식 / 남명화 / 남명희 / 남미영 / 남방채 / 남범우 / 남봉근 / 남산커피집 / 남양부동산 / 남원추어탕 / 남재순 / 남해관 / 노경선 / 노동식 / 노량진성당 / 노미경 / 노선갑 / 노연숙 / 노연희 / 노영철(김애옥 제노베파) / 노완수 / 노원성당빈첸시오 / 노유리 / 노은경 / 노은영 / 노은자 / 노인숙 / 노정현 / 노주영 / 노진호 / 노현아 / 노혜경 / 노혜원 / 노황래 / 노희선 / 녹색개발(신대방) / 농업회사법인송시마을 / 누리화원 / 누마타요꼬

ㄷ

다알리아마용실 / 단빠 / 단혜영 / 달앤달 / 달작업실 / 닭 한마리 / 대가감자탕 / 대가방 / 대가추어탕 / 대우당약국 / 대우약국 / 대정무역 주식회사 / 대치4동성당 / 더마마 / 더캔들리 디자인 / 더플랫 / 데일리컨츄리 / 델리하우스 / 도곡어린이집 / 도미영 / 도봉동성당 / 도봉산성당 / 도영찬 / 도윤상 / 도재민 / 도톰 / 도호경 / 동대문성당 / 동대문시장성당 / 동소현 / 동원프라스틱 / 동작노인종합복지관 / 동해상회 / 동화나라어린이집 / 두꺼비 부대찌개 / 두두월드 / 둔촌동성당 / 디에스엠텍(주)울산공장 / 디오니스(역촌) / 라우영 / 레브드마마 / 레이디키트 / 롬버스 / 롯데마트 / 루디아(보석) / 류기연 / 류명숙 / 류영상 / 류정숙 / 류지연 / 류현수 / 리디아 / 리메디쉬 / 린나이서대문

ㅁ

마경란 / 마금란 / 마춘기 / 망우동성당 / 맵시나 콜렉션 / 맹승희 / 맹정숙 / 먹고 지고갈래 / 메리봉봉 / 메종드율 / 멜라니플레이스 / 멜스키친 / 명동주 / 명성삼천리자전거 / 명일동성당 / 명춘금 / 모노서플라이 / 모노헤어 / 모다정보통신(주) / 모리보석 / 모영호 / 모윤희 / 목3동성당 / 목5동성당 / 목동성당 / 무교동낙지 / 문강희 / 문경수 / 문도방 / 문명정 / 문병호 / 문병휘 / 문복순 / 문상숙 / 문성민 / 문성현 / 문성혜 / 문수정 / 문영미 / 문정원(문지나) / 문정윤 / 문정혁 / 문주성 / 문혜란 / 문홍숙 / 미성식당 / 민경서 / 민기준 / 민명숙 / 민병란 / 민선영 / 민속떡집 / 민시원 / 민윤경 / 민윤봉 / 민윤자 / 민종분 / 민챨국시 / 민혜경 / 민혜선 / 민호지원

ㅂ

바비송 / 바우맘 / 박강존 / 박건준 / 박경 / 박경래 / 박경민 / 박경선 / 박경수 / 박경순 / 박경애 / 박경환 / 박경희 / 박광원 / 박규호 / 박금선 / 박금옥 / 박금자 / 박기범 / 박나미 / 박나윤 / 박노성 / 박덕심 / 박도담 / 박동삼 / 박동수 / 박동욱 / 박동원 / 박동진 / 박동헌 / 박마리아 / 박마리아(차동환) / 박명숙 / 박명순 / 박명옥 / 박명화 / 박명희 / 박모니카 / 박미경 / 박미미 / 박미선 / 박미옥 / 박미카엘라 / 박미혜 / 박미희 / 박민숙 / 박민자 / 박민정 / 박민철 / 박병옥 / 박병현 / 박보나 / 박복래 / 박봉곤 / 박비아 / 박상경 / 박상남 / 박상문 / 박상분 / 박상은 / 박상태 / 박상학 / 박상현 / 박상희 / 박서혜 / 박서희 / 박선심 / 박선아 / 박선영 / 박선희 / 박성남 / 박성록 / 박성수 / 박성영 / 박성은 / 박성진 / 박성호전세림 / 박성희 / 박소연 / 박소영 / 박소현 / 박수남 / 박수민 / 박수아 / 박수정 / 박수황 / 박수희 / 박순숙 / 박순식 / 박순애 / 박순옥 / 박순옥(임종명) / 박순자 / 박순혜 / 박승구 / 박승균 / 박승원 / 박시범 / 박시우 / 박시훈 / 박신영 / 박신자(이영찬) / 박아름 / 박애자 / 박언희 / 박연희 / 박영규 / 박영미 / 박영범 / 박영순 / 박영예 / 박영인 / 박영자 / 박영준 / 박영희 / 박옥산 / 박요한 / 박용구 / 박용덕 / 박용득 / 박용명오영란부부 / 박원철(나은주) / 박유경 / 박유선 / 박유영 / 박유재 / 박윤경 / 박은수 / 박은영 / 박은정 / 박은주 / 박은주(박경진) / 박이슬 / 박인선 / 박인호 / 박재현 / 박정선 / 박정순 / 박정익 / 박정화 / 박정환 / 박정효 / 박정희 / 박종익 / 박종필 / 박종혁 / 박종현 / 박주원 / 박주찬 / 박주현 / 박준우 / 박준원 / 박증순 / 박지민 / 박지영 / 박지윤 / 박진숙 / 박진영 / 박진호 / 박찬석 / 박찬웅 / 박찬희 / 박창남 / 박창수 / 박창엽 / 박창한 / 박채윤 / 박철완 / 박춘환 / 박태헌 / 박태희 / 박한순(임병모토마스) / 박해숙 / 박행자 / 박혁기 / 박현 / 박현숙 / 박현정 / 박형배 / 박혜민 / 박혜숙 / 박혜숙(권기영) / 박혜신 / 박혜연 / 박혜영 / 박혜원 / 박혜은 / 박혜희 / 박홍규 / 박화영 / 박효선 / 박효정 / 박희상 / 반봉경 / 반성화 / 반재식 / 반포4동성당 / 반포마차 / 발레리아 / 밝은아침한의원 / 방배어린이집 / 방성요 / 방안나 / 방준영 / 방지영 / 방학동성당 / 방호경 / 방홍엽 / 방효분 / 배 파비올라 / 배경옥 / 배경혜 / 배경희 / 배기원 / 배명화 / 배상옥 / 배성일 / 배수경 / 배숙현 / 배영민 / 배옥정 / 배윤미 / 배은주 / 배정숙 / 배정애 / 배준식 / 배준학 / 배진 / 배진영 / 배진희 / 백남희 / 백동훈 / 백민정 / 백선화 / 백성심 / 백숙선 / 백승민 / 백승은 / 백승현 / 백암왕순대 / 백연숙 / 백영식 / 백영임 / 백영희 / 백은영 / 백진광 / 백혜성 / 백화숙 / 버블베이지 / 변기섭 / 변나연 / 변성안 / 변수환 / 변순복 / 변영준 / 변완석 / 변정필 / 변춘자 / 변해인 / 변혜원 / 변희자 / 병천순대종가집왕족발 / 보라매종합보수 / 보탑갤러리 / 복가구 / 본가풍년집 정육식당 / 봉정우 / 봉홍종 / 부부웍스 / 부산약국 / 북경 / 북극곰출판사 / 북서울농협협동조합 / 북한산 윤가네 포차 / 빈철원 / 빛홈

ㅅ

사당5동성당 / 사당동성당 / 사랑의치과의원 / 삼성산성당 / 삼우정밀 / 삼화상회 / 상지현 / 새남터성당 / 서경선 / 서경숙 / 서경원 / 서경희 / 서광석 / 서교동성당 / 서길석 / 서대문아구찜 / 서두원 / 서란 / 서리안 / 서명숙 / 서명해 / 서민영 / 서민철 / 서민호 / 서범석 / 서병기 / 서산자매식당 / 서선옥 / 서성원 / 서세훈 / 서소라 / 서승연 / 서애라 / 서영주 / 서예슬 / 서우정 / 서울왕돈가스 / 서울주보 / 서울피혁 / 서원동본당 / 서윤석 / 서은숙 / 서은영 / 서은희 / 서일순대국 / 서일영 / 서재완 / 서재호 / 서정림 / 서정성 / 서정애 / 서정원 / 서정자 / 서정희 / 서지수 / 서지은 / 서초3단지어린이집 / 서초동성당 / 서형석 / 서효원 / 서흥현 / 석병남 / 석정광 / 석혜정 / 선덕님 / 선진상회 / 선현경 / 선희정 / 설성 / 설육례 / 설진옥 / 성건해 / 성경순 / 성남목재 / 성내동성당 / 성대골 / 성명아 / 성미현 / 성민재 / 성백련 / 성부용 / 성북동성당 / 성산동성당 / 성양자 / 성우연 / 성은경 / 성정희 / 성지보호작업장 / 성지은 / 성지호 / 성희선 / 세검정성당 / 세림섬유 / 세무법인다원 / 소재민 / 손경란 / 손경일 / 손경진 / 손금옥 / 손금자 / 손말남 / 손명구 / 손민석 / 손병순 / 손석호 / 손성규 / 손수덕 / 손영민 / 손영숙 / 손영옥 / 손우경 / 손웅기 / 손월순 / 손은선 / 손전 / 손주온 / 손지원 / 손한종 / 손혜미 / 솔자연식품 / 솔향기국수 / 송광호 / 송국혜 / 송기창 / 송명순 / 송미용 / 송민주 / 송민희 / 송숙임 / 송순자 / 송연미 / 송연미 신한 / 송영식 / 송영옥 / 송원철 / 송은경 / 송은선 / 송은지 / 송재수 / 송종필 / 송주은 / 송준호 / 송지섭 / 송진숙 / 송창권 / 송창용 / 송철순 / 송치호 / 송파동성당 / 송해정 / 송혜숙 / 송호림 / 송효섭 / 송희일 / 수색동성당 / 수성밸브공업(주) / 수유1동성당 / 수진골프존 / 쉬크브와 / 스튜디오 ALB / 신경남 / 신경민 / 신경숙 / 신경순 / 신경애 / 신경훈 / 신경희 / 신관우 / 신광상회 / 신남희 / 신대방약국 / 신도림동성당 / 신동연 / 신동천 / 신림성모성당 / 신명화 / 신문조 / 신미해 / 신병원 / 신사동성당 / 신상수 / 신상철 / 신상훈 / 신성균 / 신성애 / 신세경 / 신소영 / 신숙자 / 신순옥 / 신승원 / 신승익 / 신아금속(주) / 신양숙 / 신연식 / 신연화 / 신영자 / 신영진 / 신용우 / 신원 / 신월동성당 / 신윤주 / 신은수 / 신인숙 / 신재수 / 신재승 / 신정순 / 신정윤 / 신주리 / 신지선 / 신창희 / 신학수 / 신한마리오어린이집 / 신혁 / 신현강 / 신현국 / 신현승 / 신현옥 / 신현준 / 신혜란 / 신혜진 / 신홍원 / 심경희 / 심귀련 / 심규태 / 심루치아 / 심상선 / 심순복 / 심율의 / 심재연 / 심재은(이승욱요한) / 심지원 /

심플리레시피 / 심현숙 / 심형진 / 심혜자 / 쑥고개성당 / 씨채널 / 씨콜론커뮤니케이션

ㅇ

아모레퍼시픽 / 아오스딩 / 아틀리에솜 / 안광인 / 안국진 / 안길환 / 안덕명 / 안덕인 / 안만숙 / 안명옥 / 안병규 / 안상헌 / 안석지 / 안성수 / 안세정 / 안소현 / 안수연 / 안수정 / 안순옥 / 안연숙 / 안영숙 / 안윤주 / 안인숙 / 안재호 / 안정란 (차광옥) / 안정희 / 안준희 / 안창화 / 안태욱 / 안학정 / 안행덕 / 안형숙 / 안혜원 (한정우안토니오) / 안혜자 / 안혜진 / 안희종 / 알레르망 / 알앤제이콜렉션 / 암사동성당 / 압구정1동성당 / 압구정칼국수(김숙희) / 약손약국 / 양건 / 양명희 / 양미 / 양미숙 / 양성심 / 양성윤 / 양세진 / 양승서 / 양승원 / 양애숙 / 양영식 / 양영은 / 양윤지 / 양인수 / 양인옥 / 양일형 / 양재혁 / 양정임 / 양정훈 / 양정희 / 양종구 / 양지보신탕 / 양지선 / 양지영 / 양지현(골롬바) / 양춘아 / 양현석 / 양혜경 / 양혜명 / 양호승 / 어윤석 / 어윤호 / 어은정 / 엄경자 / 엄미라 / 엄선섭 / 엄숙경 / 엄순식 / 엄현철 / 엄호식 / 에스에스브이(주) / 에이치테크 / 여윤주 / 여은구 / 여은미 / 여지연 / 여태경 / 역말 닭한마리 / 역삼동성당 / 역촌골 민속주점 / 역촌동본당 / 연승철 / 연제숙 / 연천상회 / 연희동성당 / 연희아이렉스안경 / 염경숙 / 염경훈 / 염리동성당 / 염상록 / 염시종 / 염우찬 / 염정선 / 염태주 / 영등포성당 / 영찬소프트웨어(주) / 영풍화원 / 예혜진 / 오건희 / 오금동성당 / 오남주 / 오대희 / 오맹표 / 오명숙 / 오명주 / 오미경 / 오미선 / 오부연 / 오서운 / 오숙연 / 오숙자 / 오승훈 / 오요셉 / 오유경 / 오윤규 / 오윤선 / 오은희 / 오인화 / 오재원 / 오정숙 / 오주경 / 오지영 / 오피스알파 / 오하탁 / 오향미 / 오현수현우 / 오형수 / 오혜선(주승택바드시리오) / 오혜정 / 오혜진 / 오화영 / 옥건영 / 옥수동성당청년회 / 옥재용 / 옥재진 / 온경주 / 왕정한 / 요셉이비인후과 / 용상욱 / 용수수퍼 / 우가인 / 우귀순 / 우리장작구이 / 우림창호(주) / 우상희 / 우연수 / 우이동성당 / 우정미용실 / 우정한 / 우종건 / 원석희 / 원순희 / 원은숙 / 원일정육점 / 원종숙 / 원혜령 / 원혜성 / 원희목 /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 / 위드차이나 / 위성문 / 위수경 / 위클리컨셉 / 유가네통닭 / 유경숙 / 유경옥 / 유경인 / 유경주 / 유경촌 / 유경희 / 유관희 / 유기열 / 유동균 / 유리나 / 유명석 / 유미리 / 유미숙 / 유미애 / 유봉상 / 유분이 / 유상열 / 유상훈 / 유성근 / 유소정 / 유순덕 / 유승애 / 유승엽 / 유아름 / 유양숙(박영우) / 유영춘(권순범프란체스코) / 유윤경 / 유은자 / 유은준 / 유은희 / 유재석 / 유정권 / 유정미 / 유정숙 / 유정희 / 유주희 / 유지승 / 유지연 / 유진영 / 유진해물 / 유초순 / 유태화 / 유한석 / 유현아 / 유형만 / 유혜성 / 유혜연 / 유호경 / 유호선 / 유홍림 / 유효순 / 유효인 / 윤경숙 / 윤기남 / 윤난영 / 윤매전 / 윤명옥 / 윤명자 / 윤미경 / 윤병훈 / 윤복희 / 윤석경 / 윤석란 / 윤석인 / 윤석현(윤태연 스테파노) / 윤선영 / 윤성근 / 윤성자 / 윤소연 / 윤송이 / 윤수근 / 윤승경 / 윤승용 / 윤승현 / 윤승환 / 윤영란 / 윤영민 / 윤영현 / 윤옥이 / 윤옥주 / 윤용섭 / 윤은선 / 윤은숙 / 윤장석 / 윤재인 / 윤재호 / 윤정근 / 윤정기 / 윤종구 / 윤종천 / 윤지희 / 윤진수 / 윤차숙 / 윤태순 / 윤태영 / 윤태헌 / 윤하정 / 윤한섭 / 윤한정 / 윤현숙 / 윤현주 / 윤혜련 / 윤혜성 / 윤혜영 / 윤혜정 / 윤화숙(최덕준) / 윤효숙 / 은영기 / 음재완 / 이가떡방 / 이가화 / 이갑동 / 이갑중 / 이강복 / 이강표 / 이경남 / 이경란 / 이경림 / 이경섭 / 이경숙 / 이경순 / 이경옥 / 이경은 / 이경자 / 이경자(주수도베드로) / 이경진 / 이경철 / 이경표 / 이경현 / 이경혜(김승수) / 이경화 / 이경훈 / 이경희 / 이계균 / 이계숙 / 이계헌 / 이고운 / 이광자 / 이광재 / 이광점 / 이광주 / 이광혁 / 이교선 / 이귀현 / 이귀호 / 이규녀 / 이규석 / 이규순 / 이규연 / 이규하(김명석) / 이규혁 / 이근임 / 이근진 / 이금숙 / 이금실 / 이금자 / 이금주 / 이기 / 이기명 / 이기정 / 이기주 / 이길주 / 이나리 / 이나미 / 이나현 / 이난희 / 이남주 / 이남희 / 이다운 / 이다정 / 이달래 / 이대철 / 이도경 / 이동영 / 이동원 / 이동윤 / 이동주 / 이동준 / 이두규 / 이두환 / 이록환 / 이만억 / 이만우 / 이말순 / 이명근 / 이명숙 / 이명순 / 이명옥 / 이명화 / 이명희 / 이무석 / 이문수 / 이문은 / 이미경 / 이미나 / 이미라 / 이미연 / 이미영 / 이미자 / 이미하 / 이미현(최윤정 아녜스) / 이미화 / 이민기 / 이민성 / 이민우 / 이민자 / 이민정 / 이범규(이다민) / 이범대 / 이병률 / 이병선 / 이병화 / 이보 / 이상걸 / 이상남 / 이상림 / 이상림(전대훈) / 이상명 / 이상미 / 이상백 / 이상승 / 이상용 / 이상웅 / 이상원 / 이상직 / 이상철 / 이상협 / 이상호 / 이서정 / 이서희 / 이석 / 이석(이원준 라파엘) / 이석래 / 이석훈(이우정벨라뎃다) / 이선근 / 이선미 / 이선아 / 이선애 / 이선영 / 이선옥 / 이선행 / 이선혜 / 이선희 / 이성근 / 이성룡 / 이성명 / 이성은 / 이세인 / 이소연 / 이소영 / 이소정 / 이송연 / 이송헌 / 이송희 / 이수산나 / 이수연 / 이수영 / 이수진 / 이수현 / 이숙이(임영기 라파엘) / 이숙자 / 이숙자(이범덕) / 이순금 / 이순덕 / 이순례 / 이순복 / 이순원 / 이순임 / 이순자 / 이순주 / 이순희 / 이슬기 / 이승로 / 이승민 / 이승연 / 이승우 / 이승환 / 이신우 / 이신호 / 이신희 / 이아연 / 이안심 / 이애란 / 이애숙 / 이양근 / 이양순 / 이엠케이트레이딩 / 이연승 / 이연희 / 이영경 / 이영란 / 이영미 / 이영석 / 이영숙 / 이영아 / 이영옥 / 이영은 / 이영조 / 이영종 / 이영주 / 이영호 / 이영후 / 이영희 / 이영희(김정윤 라파엘라) / 이예준 / 이오선 / 이오영 / 이옥근 / 이옥재 / 이옥한 / 이용국이도경 / 이용남 / 이용석 / 이용옥 / 이용진 / 이용호 / 이용환 / 이용희 / 이우선 / 이우연 / 이우채 / 이우철 / 이운기 / 이원애 / 이원왕 / 이원자 / 이원준 / 이원평 / 이유상 / 이유선 / 이유진 / 이유희 / 이윤수 / 이윤우(신예찬) / 이윤정 / 이윤희 / 이은경 / 이은숙 / 이은순 / 이은엽 / 이은영 / 이은인 / 이은자 / 이은정 / 이은하 / 이은혜 / 이은화 / 이은희 / 이의경 / 이인구 / 이인미 / 이인순 / 이인자 / 이인주 / 이인희 / 이일수 / 이일용 / 이자연 / 이장 / 이장섭 / 이재경 / 이재근(임향진) / 이재만 / 이재상 / 이재성 / 이재신 / 이재영 / 이재원 / 이재은 / 이재주 / 이재진 / 이재항 / 이재헌 / 이재홍 / 이재화(윤준식 안토니오) / 이점숙 / 이정국 / 이정근 / 이정란 / 이정례 / 이정림 / 이정민 / 이정선 / 이정섭 / 이정아 / 이정연 / 이정원 / 이정은 / 이정자 / 이정진 / 이정하 / 이정현 / 이정화 / 이정환 / 이정희 / 이제동 / 이제복 / 이제완 / 이제홍 / 이종균 / 이종림 / 이종무 / 이종범 / 이종선 / 이종섭 / 이종수 / 이종원 / 이종임 / 이종찬 / 이종현 / 이주영 / 이주원 / 이주윤 / 이주형 이지혜 / 이주호 / 이주화 / 이준혁 / 이준희 / 이중범 / 이중환 / 이중희 / 이증상 / 이지연 / 이지열 / 이지영 / 이지원 / 이지은 / 이지후 / 이진서 / 이진아 / 이진영 / 이진을 / 이진희 / 이찬미 / 이찬화 / 이창걸 / 이창용 / 이창윤 / 이창현 / 이창협(이상은 아녜스) / 이창희 / 이채정 / 이춘배 / 이춘식 / 이춘영 (정훈) / 이춘자 / 이춘호 / 이춘환 / 이춘희 / 이충경 / 이충현 / 이치훈 / 이카타리나 / 이태리안경점 / 이태순 / 이태연 / 이태용 / 이태원성당 / 이태호 / 이택수 / 이학수 / 이한우 / 이한진 / 이해성 / 이해영 / 이향순 / 이헌주 / 이혁열 / 이현경 / 이현규 / 이현수 / 이현숙 / 이현정 / 이현주 / 이현진 / 이현호 / 이현흥 / 이형숙 / 이형준 / 이혜경 / 이혜린(최익석 바오로) / 이혜민 / 이혜배 / 이혜성 / 이혜숙 / 이혜재 / 이혜정 / 이혜진 / 이홍 / 이홍규 / 이화연 / 이화정 / 이효경 / 이효림 / 이효상 / 이효영 / 이효정 / 이희배 / 이희수 / 이희옥 / 인경환 / 인경희 / 인왕해물 / 인은희 / 임경옥 / 임경은 / 임계영 / 임광재 / 임규덕 / 임기건 / 임난미 / 임남재 / 임다해 / 임미경(김영선 요셉) / 임미령 / 임민지 / 임병구 / 임부순 / 임상문 / 임석호 / 임선옥 / 임성숙 / 임성연 / 임성택(마성희아드리아) / 임세희 / 임소영 (전윤오니꼴라오) / 임순의 / 임순천 / 임승택 / 임여정 / 임영수 / 임영진 / 임영희 / 임영희(김만일) / 임위혁 / 임유연 / 임윤덕 / 임윤자 / 임은아 / 임의자 / 임이순 / 임재숙 / 임재진 / 임정수 / 임정실 / 임정언 / 임정은 / 임정희 / 임종국 / 임종천 / 임지성 / 임지연 / 임지현 / 임진우 / 임창선 / 임철현 / 임하현 / 임해순 / 임혁진 / 임현숙 / 임현아 / 임현주 / 임현준 / 임형빈 / 임혜경 / 임혜연 / 임화남 / 임화순 / 임효선

ㅈ

자동차후원 / 자양2동성당 / 장경신 / 장경일 / 장경임 / 장경희 / 장금주 / 장동화 / 장두석 / 장말순 / 장맹숙 / 장명숙 / 장명자 / 장명환 / 장명희 / 장미령 / 장미정육점 / 장민정 / 장복님 / 장삼현 / 장상식 / 장선영 / 장선화 / 장성희(임갑표) / 장소영 / 장소윤 / 장수영 / 장시영 / 장양수 / 장엘리사 / 장연수 / 장영준 / 장옥화 (이상집) / 장우석 / 장우진 / 장운상 / 장원영 / 장원용 / 장원종 / 장위떡볶기 / 장위떡집 / 장유리 / 장인진 / 장재숙 / 장재진 / 장재현 / 장정은 / 장지연 / 장지은 / 장직현 / 장터쇼핑 / 장하윤 / 장학금 / 장현금 / 장현진 / 장혈순 / 장혜명 / 장화정 / 장휘부 / 장희순 / 장희은 / 장희주 / 장희천 / 재단법인 오일홍재단 / 전경녀 / 전경아 / 전국일 / 전귀상 / 전대영 / 전대주 / 전명숙(최상근) / 전명은 / 전미 / 전병돈 / 전부덕 / 전상목 / 전성민 / 전성배 / 전성우 / 전수민 / 전수정 / 전수진(오옥진) / 전숙자 / 전여옥 / 전연경 / 전영삼 / 전영숙 / 전영실 / 전용찬 / 전용현 / 전우식 / 전유헌 / 전은주 / 전자연 / 전정림 / 전종석 / 전진경 / 전진숙 / 전혜영 / 정경남 / 정경애 / 정광현 / 정구훈 / 정국진 / 정권섭 / 정귀옥 / 정규일 / 정규호 / 정기봉 / 정기성 / 정기영 / 정기호 / 정남숙 / 정다연 / 정동기 / 정동원 / 정동진 / 정동진수산 / 정동채 / 정말례 / 정명국 / 정명자 / 정명화 / 정미경 / 정미숙 / 정미자 / 정민찬 / 정민호 / 정분임 / 정상규 / 정상재 / 정석채 / 정선아 / 정선영 / 정선화 / 정세라 / 정세진 / 정수경 / 정수옹 / 정숙필 / 정순아 / 정순영 (정종석) / 정순재 / 정승일 / 정신수 / 정아름 / 정애경 / 정양순 / 정양주 / 정여경 / 정열자 / 정영도 / 정영란 / 정영애 / 정영옥 / 정영자 / 정영태 / 정영해 / 정영호 / 정영훈 / 정옥희 / 정용선 / 정용수 / 정우네 술집 / 정운경 / 정운용 / 정원경 / 정원영 / 정원철 / 정유경 / 정유선(손수영바오로) / 정윤미 / 정윤재 / 정은숙 (함윤정) / 정은순 / 정은정 / 정은희 / 정이순 / 정익균 / 정인경 / 정인경 (강서영 베로니카) / 정인경(강희언 요한) / 정인상 / 정인선 / 정인섭 / 정재철 / 정정형외과 / 정정훈 / 정종국 / 정종기 / 정종순 / 정주영 / 정지연 / 정지홍 / 정진국 / 정진석 / 정진희 / 정찬영 / 정찬익 / 정찬중 / 정채용 / 정철동 / 정철현 / 정철호 / 정춘옥 / 정충자 / 정치효 / 정칠성 / 정태옥 / 정태진 / 정태환 / 정태희 / 정하진 / 정학순 / 정학용 / 정한중 / 정해균 / 정해진 / 정향경 / 정혁 / 정현수 / 정현숙 / 정현철 / 정현태 / 정형애 / 정호경 / 정호정 / 정홍희 / 정희선 / 정희은 / 정희철 / 제기동성당 / 제이스타일미용실 / 제중원약국 / 조건현 / 조경민 / 조계범 / 조광혁 / 조광현 / 조광회 / 조광희 / 조규만 / 조금숙 / 조금순 / 조긍양 / 조기인(송옥기) / 조난영 / 조농진 / 조동석 / 조동준 / 조명선 / 조명자 / 조문영 / 조미숙 / 조미영 / 조미자 / 조미정 / 조미혜 / 조민영 / 조병용 / 조상훈베드로 / 조선희 / 조선희(김재일 바오로) / 조성욱 / 조성원 / 조성윤 / 조성임 / 조성필 / 조성훈 / 조세원 / 조소영 / 조수선 / 조수정 / 조순석 / 조순자 / 조아라 / 조애경 / 조애현 / 조양순 / 조연경 / 조영관 / 조예림 / 조옥미 / 조옥희 / 조온희 / 조원준 / 조윤숙 / 조윤신 / 조윤정 / 조은경 / 조은별 / 조은연 / 조은희 / 조인숙 / 조일현 / 조재승 / 조재행 / 조정미 / 조정숙 / 조정자 / 조정희 / 조제호 / 조종호 / 조준호 / 조중희 / 조지연 / 조진국 / 조진숙 / 조진순 / 조진희 / 조차희 / 조창연 / 조태식 / 조태원 / 조헌 / 조혁진 / 조현규 / 조현주 / 조현지 / 조현화 / 조형섭 / 조혜영 / 조혜정 / 조효민 / 조희숙 / 조희윤 / 조희재 / 좌혜경 / 주)대경네트워크 / 주)리블랭크 / 주)스킹키 / 주날개밑 / 주동혁 / 주미다 / 주선형 / 주식회사 북촌 / 주식회사 영승 / 주신경 / (주)우리은행 / 주일권 / 주장미 / 주춘자 / 주해숙 / 주현수 / 주현숙 / 주현우 / 주현정 / 주혜련 / 주화순 / 주희숙 / 중곡동성당 / 중림동성당 / 중앙동성당 / 지도화 / 지동규 / 지만호 / 지민규 / 지서인 / 지은이 / 지정훈 / 지형 / 지호한방삼계탕 / 진경희 / 진능호 / 진달래미용실 / 진보라 / 진세형 / 진수근 / 진연옥 / 진영아 / 진은경 / 진장복 / 진정란 / 진주안젤라 / 진준영

ㅊ

차대식 / 차명희 / 차미경 / 차민영 / 차수경 / 차영옥 / 차영철 / 차은희 / 차현미 / 채경자 / 채보영 / 채사병 / 채수훈 / 채점숙 / 채현주 / 채형주 / 채혜연 / 천성민 / 천세영 / 천안문 / 천재욱 / 천지인경희한의원 / 천화금 / 철물점 / 청계산장수촌 / 청담동성당 / 청파동성당 / 최가영 / 최강문 / 최경아 / 최계헌 / 최광식 / 최광택 / 최근주 / 최길 / 최나영 / 최남수 / 최동일 / 최득실 / 최명길 / 최명애 / 최문정 / 최미랑 / 최미숙 / 최민 / 최민해 / 최민홍 / 최범락 / 최범수 / 최병기 / 최상권 / 최상원 / 최서영 / 최석환 / 최선영 / 최선혜 / 최선호 / 최성일 / 최성자 / 최성희 / 최숙희 / 최순임 / 최순주 / 최승덕 / 최승철 / 최승호 / 최안숙 / 최양규 / 최양원 / 최영우 / 최영희 / 최옥권 / 최옥순 / 최옥희 / 최용순 / 최용신 / 최우현 (정혜경 비비안나) / 최웅식 / 최원길 / 최원영 / 최원정 / 최원혁 / 최유성 / 최유정 / 최유철 / 최윤동 / 최윤석 / 최윤실 / 최윤영 / 최윤지 / 최윤호 / 최은경 / 최은규 / 최은영 / 최은정 / 최은진 / 최은희 / 최인복 / 최자윤 / 최재원 / 최재현 / 최점순 / 최정묵 / 최정수 / 최정숙 / 최정심 / 최정아미용실 / 최정호 / 최종열 / 최준화 / 최중규 / 최지연 / 최지환 / 최진규(최세훈베드로) / 최진명 / 최진선 / 최진주 / 최창기 / 최창묵 / 최철원 / 최청애 / 최춘규 / 최한솜 / 최한희 / 최현 / 최현경 / 최현만 / 최형선 / 최혜란 / 최혜인 / 최혜정 / 최호영 / 최화수 / 최환주

ㅋ-ㅍ

코뱬 / 탁성훈 / 태릉성당 / 태양약국 / 테라스크린 / 통삼겹구이 6,900원 / 트레이드맨 / 파리바게트 / 펄스캠생활과학 / 편용준 / 평화기업사 / 포계촌닭한마리 / 포이동성당 / 표명애(표정하) / 표미자 / 표윤수 / 표화순 / 푸른문고 / 풍년갈비 / 풍년상회 / 피자스쿨

ㅎ

하경철 / 하늘땅물벗 / 하미용(이동현) / 하민정 / 하영주 / 하유정 / 하정숙 / 하정연 / 하종수 / 하지영 / 한강성당 / 한경란 / 한경미 / 한경숙 / 한경원 / 한관수 / 한국오츠카제약(주) / 한권표 / 한금숙 / 한기상 / 한남희 / 한능희 / 한대창 / 한마음생선 / 한마음오리숯불구이 / 한명숙 / 한미영 / 한봉근 / 한봉순 / 한봉희 / 한상국 / 한상두 / 한상빈 / 한상옥 / 한상욱 / 한상혁 / 한선형 / 한성현 / 한성희 / 한세희 / 한소희 / 한솥도시락 / 한수련 / 한수통상 / 한순란 / 한승석 / 한승희 / 한연희 / 한영미 / 한영원 / 한영철(정영애) / 한유미 / 한유선 / 한윤교 / 한윤희 / 한인숙 / 한인영 / 한재관 / 한재홍 / 한정 / 한정석 / 한정숙 / 한정순 / 한정우 / 한정해 / 한종란 / 한주희 / 한지선 / 한지현 / 한진화 / 한찬식 / 한창권 / 한창섭 / 한창현 / 한현옥 / 한혜정 / 할머니해장국 / 함경숙 / 함금호 / 함상규 / 함영업 / 함윤희 / 함정인(유동훈 베드로) / 함종식 / 함창임 / 함테오필로 / 해든어린이집 / 해뜨락어린이집 / 해피빈 / 행당동성당 / 허경구 / 허동혁 / 허동환 / 허민 / 허상근 / 허수경 / 허영부 / 허유민 / 허자은 / 허정숙 / 허진 / 허훈 / 헤어닥터 / 헤어라희 / 헬레나 / 현나래 / 현대자동차 / 현대자동차부품 / 현동욱 / 현상일 / 현순득 / 현프란체스카 / 형제상회 / 호성희 / 호텔노래방 / 홍강훈 / 홍경숙 / 홍경화 / 홍교선 / 홍근숙 / 홍금숙 / 홍기업 / 홍기영 / 홍기옥 / 홍만표 / 홍문희 / 홍미령 / 홍민지 / 홍석기 / 홍선경 / 홍성대 / 홍성무 / 홍성우 / 홍성일 / 홍성철 / 홍수진 / 홍순임 / 홍승연 / 홍영석 / 홍영준 / 홍영지 / 홍영희 / 홍유리 / 홍윤석 / 홍은2동성당 / 홍은영 / 홍은혜 / 홍재모 / 홍정희 / 홍제그랑프리안경원 / 홍제동성당 / 홍종숙 / 홍지원 / 홍진희 / 홍현정 / 홍희정 / 화양동성당 / 황경희 / 황규봉 / 황다연 / 황명선 / 황명희 / 황번(황지현) / 황보진아 / 황상선 / 황석연 / 황선대 / 황성국 / 황성희 / 황소정 / 황수례 / 황수호 / 황승우 / 황언민 / 황영자 / 황유경 / 황유석 / 황유숙 / 황은숙 / 황은영 / 황의관 / 황인주 / 황재경 / 황정서 / 황지선 / 황진경 / 황철성 / 황현근 / 황혜정 / 효자건설(주) / 후암동성당 / 희망카페 사회적협동조합

서울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미니 인터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명동의 서울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 사무실에 가면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조용하지만 바삐 돌아가는 사무실 풍경과 잘 어울리는
초로의 두 사람이 바삐 움직이는 젊은 직원들 사이를 고요히 오가며
열심히 일을 돕는 모습이 단연 눈에 띈다.

부부자원봉사자,
이진근(프란치스코), 이혜숙(마리안나)

센터 사무실에서 행정사무보조 자원봉사를 시작한 지 올해로 일 년이 됐다. 서류정리와 파일링, 복사에 간단한 컴퓨터 작업까지 70대 나이가 무색할 만큼 능숙한 일처리로 직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수원교구 단대동 성당 소속인 이 부부가 서울의 명동까지 진출봉사(?)를 하게 된 것은 남편 이진근씨의 형제의 활발한 성격과 삶에 대한 반추 때문이었다.

한국표준협회에서 함께 일을 했던 부부는 70대가 되어 모든 경제활동을 마감하게 되자 지나온 생을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하느님의 무수한 은총과 사랑으로 가족, 집을 소유하고 노후준비를 하게 됐지만 자신들이 그 은총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봉사하는 신앙인으로 남은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부부는 카리타스에서 기본 교육을 받은 후 인터넷 등으로 봉사할 곳을 찾아보았지만 나이 탓인지 받아주는 기관이 없었다고 한다. 이 때 남편 이진근씨의 뛰어난 적극성이 빛을 발했다. 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겠다고 제안을 한 것이다. 센터 봉사말고 현재 성경공부 멘토링 자원봉사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이진근씨가 먼저 하겠다고 제의를 해서 이뤄졌다. 봉사할 거리를 직접 찾아 개발하는 남편의 적극성 때문에 부인 이혜숙씨는 가끔 당황하지만 결국은 남편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함께 봉사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이 부부에게 봉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과거의 경험을 발휘할 기회이며 하느님 은총에 감사하는 시간이 된다'고 한마디로 정리한 이진근씨는 부인과 함께 하기에 행복한 생활은 덤이라고 덧붙인다. 조용하고 얌전해서 나서기 꺼려하고 소극적이던 부인도 이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활발함을 갖게 되어 좋다고 말한다. 더불어 나이 때문에 부리기도 어렵고 일도 잘 못해서 그만 두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날짜와 시간을 꼭 지키고 무슨 일이든 주어진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봉사철칙으로 삼아 최선을 다하려 한다. 이진근씨는 나이든 사람들이 봉사할 곳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가톨릭교회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

서울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에서는 2017년에도 하느님 사랑 실천인 자원봉사 활동이 더욱 가치있고 보람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신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기본교육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신앙인으로서 자원봉사 기본정신과 바람직한 역할 및 자세를 제시하고, 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립니다.

- 일시 2017.3.11일(토), 6.10(토) 9. 9(토), 11.18(토)
- 내용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자원봉사 의미 및 자세, 활동영역 안내
- 대상 자원봉사를 시작하는 분,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만 기본교육이 필요한 분
- 교육비 1인당 5천원
- 준비물 증명사진 1매
-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426-1호

자원봉사 위탁교육(10인 이상 시, 신청 가능)

본당, 사회복지시설 등의 자원봉사 기본교육 요청 시,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해 드립니다. 자세한 일정 및 시간은 담당자와 상의 후 진행가능하니, 사전에 연락주세요.

- 일정 논의 가능
- 시간 1시간~1시간 30분 (단체에 따라 협의 가능)
- 대상 본당, 본 회 직영 및 수탁, 등록시설 자원봉사자
- 교육비 1인당 5천원
- 준비물 증명사진 1매

자원봉사 재교육(10인 이상 단체 가능)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어려움, 갈등을 해결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기본 정신과 동기를 재강화함으로써 보다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진행합니다.

- 일정 논의 가능
- 시간 1시간~1시간 30분 (단체에 따라 협의 가능)
- 내용 가톨릭자원봉사 정체성 인식 자원봉사 활동평가 및 개선방향 도출 등 (단체의 활동에 따라 변동 가능)
- 교육비 1인당 5천원

본당 자원봉사 리더교육

본당 내 사랑을 실천하는 단체, 봉사자들이 역할을 인식하고, 본당 봉사조직의 리더로서 역량을 길러 본당 내 활동이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 일정 추후 홈페이지 통해 공지 예정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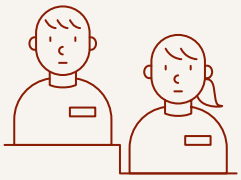
서울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통합네트워크시스템(www.escvc.or.kr)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교육, 활동내용, 확인서 발급 등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원봉사 연계와 신청을 온라인으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가입 ⇨ 봉사활동 신청 ⇨ 봉사실적 입력(등록센터) ⇨ 봉사실적 관리 및 확인증 발급)

자원봉사통합네트워크시스템 등록요원 교육

본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본당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으로서 소속 자원봉사자를 등록, 관리할 수 있는 등록요원을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본 교육으로 시스템 전반적인 현황 및 시스템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이므로 소속 직원이 아닌 경우, 대표자(주임신부님)의 추천을 받은 분에 한해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시 1월, 3월, 10월, 12월 둘째주 화요일 14:00~17:00
- 장소 교구청 별관 전산교육실
- 대상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시설의 경우, 대표자 또는 자원봉사 실무 담당자
  본당의 경우, 사무장 또는 단체장, 주임신부님 추천에 의한 본당 자원봉사 관리자
- 신청 02-727-2248(사전접수 필) 교육진행시, 시설 및 본당에 공문 발송
- 교육비 1인당 5천원

자원봉사로 하는
사순시기 자비실천 사랑나눔



자원봉사 교육에 참여하기!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자원봉사 기본정신과 바람직한 역할 및 자세를 제시하고, 실제 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교육 안내 클릭!

[기본교육 일정]

일시: 2017. 3.11, 6.10, 9.9, 11.8 토요일 오전 10시~13시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4층

* 교육 참가 인원이 10인 이상일 경우, 직접 방문하여 위탁교육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자원봉사 활동 일감 찾아보기!

사순시기 동안 가톨릭 신자들이 희생과 보속의 의미로써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일감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여기서 봉사하세요 클릭!

하느님이 주신 재능 나누기!

하느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톨릭 사회복지시설의 재능기부 봉사활동과 연계해 드립니다.

서울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자원봉사하고 싶어요 클릭!

영역	세부 영역	주 활동처	비고
상담	심리상담, 법률 및 세무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아동 및 청소년 시설 등	자격증 필수
의료	양방진료, 한방진료, 간호, 물리치료 등	노인 및 의료복지 시설 등	
교육	초중고생 학습 멘토, 외국어, 노래, 서예, 악기 등	아동 및 청소년 시설 등	관련 종사자 및 유경험자
기타	이미용, 요가, 생활체조, 마사지, 환경 정비 등	노인 및 장애인 시설 등	

자원봉사 활동 알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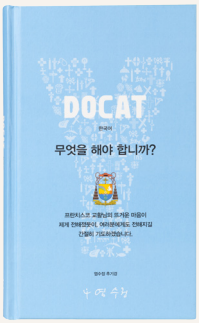
우리 본당 또는 지역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나 우수한 자원봉사 사례를 이메일(scvc@hanmail.net)로 보내주세요. 귀감이 되는 좋은 사례를 선정하여 홈페이지 및 CPBC 가톨릭평화방송 미니 다큐 '나눔'에 소개해 드립니다.

DO CAT과 함께하는 사회교리

일러두기

<DO CAT>은 레오 13세 교황 이후부터 중요한 문헌에서 발전된 가톨릭 교회의 사회 교리를 쉽고 간략하게 옮겨 놓은 책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교회의 중요한 문헌들을 직접 읽으며,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원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다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적극 투신하라고 자주 요구했습니다.

<DO CAT>이라는 제목에는 "행동하는 것"이라는 뜻(TO DO)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대답해 줍니다. 이 책은 복음으로 먼저 우리 자신을, 이어서 주변 환경을, 마지막으로는 세상 전체를 바꾸는데 도움을 주는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우리는 가톨릭사회복지, 즉 카리타스를 실천하는 사람들로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추천하신 가톨릭사회교리서 <DO CAT>을 통해 하느님 사랑실천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어려움 속에서 희망과 삶의 가치를 잃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모든 이들을 비추는 밝은 빛이 되기를...



<DO CAT>은
가톨릭출판사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계획: 사랑

Q. 하느님은 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나요?

하느님은 넘쳐흐르는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 교회의 구성원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Q. 하느님이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왜 세상은 불의와 억압과 고통으로 가득한가요?

하느님은 세상을 그 자체로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느님에게서 멀어졌고, 하느님의 사랑을 거슬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하느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벨탑을 보십시오! 그 이후부터 세상에는 파괴적인 법칙이 나타났습니다. 하느님이 계획하셨던 것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결정도 이 세상의 불의와 고통을 양산합니다. 그릇된 결정은 때때로 악과 죄의 구조를 더욱 단단하게 합니다. 이때 개인은 온전히 악과 불의한 체계 안에서 행동하게 되며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예컨대 군인으로 불의한 전쟁에 가담해야만 할 때가 그렇습니다.

Q. 하느님은 왜 인간에게 악을 행할 가능성을 주셨나요?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순수한 자유가 주어졌다면 거기에는 그릇된 결정을 할 가능성도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자유 자체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Q. 인간은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나요?

사랑을 받고 또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과 깊이 일치합니다. 여기에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그 모범으로 보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느님은 그 자체로 사랑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영원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친교에 인간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사랑을 멀리하지 않고 마음을 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넘어서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온전한 자유 의지로 십자가에서 희생되셨고, 당신의 인간적 생명을 친히 봉헌하심으로써 사랑의 위대한 업적을 완수하셨습니다.

Q.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덕으로서 훈련을 통해 키울 수 있습니다. 더 용감하고, 더 대담하고, 더 의롭고,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순수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호의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인격체로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느끼며,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사랑하는 법을 익힌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도움으로 아주 고통스럽고 냉대를 받는 곳에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을 돌볼 때가 그런 경우입니다. 또한 우리의 반대자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대해야 할 경우 곧 우리가 복수와 증오와 폭력을 포기할 때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 본문은 (재)천주교서울대교구 가톨릭출판사의 <DO CAT>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인간 존엄성, 공동선,보조성, 연대성: 사회 교리의 원리

Q. 가톨릭 사회 교리에는 어떤 원리가 있나요?

가톨릭 사회 교리는 인간 존엄성의 원리, 공동선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 이러한 네 가지 원리로 인간의 사회적 현실 전체를 파악할 수 있고, 이 현실을 참으로 정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네 가지 원리가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첫째, 이 원리들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원리들이 이성에 의해 조명된 그리스도교 신앙의 결과로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느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특히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핵심 계명을 지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개인들 사이의 관계라든지, 계층이나 민족들 사이의 관계라든지 말이지요. 이러한 모든 경우에 사회 교회의 네 가지 원리를 통해, 무엇이 인간 존엄성에 부합하는지, 무엇이 사회적이고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Q. 왜 우리는 이러한 원리의 따라 행동해야 하나요?

인간의 존재는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도 사회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책임을 맡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돕고, 공동선에 봉사하며,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공동체의 독자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윤리적으로 더 큰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복지와 정의: 경제

Q. 성경은 가난과 부유함에 대해 어떻게 말하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느님 앞에서 부유하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는 표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기도로 우리는 하느님께 지상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간청합니다. 우리는 호화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소유로 행복한 삶을 위해 가족의 부양, 선행, 문화 참여와 교육 그리고 영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화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Q. 가난은 항상 나쁜 것인가요?

'가난'이 타의에 의해 빚어진 곤경이며 삶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 모자람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인류의 한쪽은 굶주리고, 다른 한쪽은 양식이 남아돌아서 버린다는 사실은 분노할 일이며 용서받지 못할 죄악입니다. 부유한 국가에서 물질적인 빈곤의 경계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또는 최저 생계비는 얼마로 정할 수 있는지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풍족하게 살지 못하는 상대적인 가난을 항상 부정적으로만 여겨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가난은 인간에게 하느님 앞에서 참으로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고, 하느님을 신뢰하고 간청하는 개방적인 태도를 지니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물질적인 부를 자발적이고 의식적으로 포기하기도 합니다.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느님께 봉사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하느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적으로 소유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 외에는 더 선호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Q. 타인의 가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하느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웃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습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비의 활동에 충실해야 합니다. 도움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직접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금과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립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예컨대 가난한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그에게 좋은 직업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그가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립을 무리하게 요구해서 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인은 일자리들을 만들고 인간의 품위를 잃지 않는 노동 조건을 만듦으로써 가난 퇴치에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Q. 발전은 왜 경제성장보다 중요한가요?

발전은 경제 성장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인간은 복지와 안전에 대한 전망 외에도 온전한 발전에 대한 전망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 안에서, 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의료적인 공급 등을 통해서 말입니다. 부유한 나라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복지가 실현되는 외딴섬에 관한 꿈을 꿉니다. 국제 경제의 과제 가운데 하나가 모든 인간을 위한 포괄적이고 연대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유한 나라에도 도움이 됩니다. 부자가 항상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져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인간을 존중하는 경제 체제에서는 타인의 상황이 개선됨으로써 경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자동이체(CMS) 후원신청서

성 명(세례명)	
휴 대 폰	유선전화
주 소	
소식지 수령방법	☐ 우편 ☐ 이메일 (@) ☐ 수령안함
■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신청인은 예금주와 동일해야 합니다.	
예금주명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 –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 ☐☐☐☐☐
은 행 명	출금이체일 선택 매월 ☐ 5일 ☐ 20일
계좌번호	
후원금액	☐ 1만원 ☐ 3만원 ☐ 5만원 ☐ 10만원 ☐ 기타 (원)

예금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출금통장에는 매월 약정일에 인출기관명이 「서울카리타스」로 표시됩니다.

예금주 (서명)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 동의**

① 수집 및 이용목적: 본 회 회원가입, 자동이체 서비스 제공, 각종 사업정보 제공, 연말정산소득공제 등
② 수집항목 :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계좌번호 /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③ 보유 및 이용기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④ 신청인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명례방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 등록/해지 사실통지 등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정보,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⑤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단,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신청 절차에 의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수집에 동의하셔야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 제3자 제공 ☐ 동의함 ☐ 동의안함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을 통한 기부내역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신 분은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을 통해서는 기부금내역을 확인하실 수 없으며, 본회가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는 기부금영수증을 별도 첨부하여 연말정산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동의함 주민등록번호 ☐☐☐☐☐☐ – ☐☐☐☐☐☐☐ ☐ 동의안함

위와 같은 내용과 다름없이 후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예금주 (서명)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제와 직원들은 매월 후원자분을 위한 미사 및 기도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에 의거 연말정산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우)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층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Tel. 02-776-1314

목소리

각 질문에 대하여 해당되는 번호에 V표를 해주세요.

1. <나눔+>의 글씨체나 글씨 크기가 읽기 편하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2. <나눔+>의 표지가 마음에 든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3. <나눔+>의 발행주기(현재 분기별 계간 발행)가 적절하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4. 이번 호 <나눔+>에서 가장 유익했던 코너는?

( )

5. <나눔+>에서 꼭 다뤄줬으면 하는 아이템 및 기타 의견을 주신다면?

( )

6. 귀하의 연령은?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 해당 설문은 <나눔+>을 구독하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함입니다. 보내주신 좋은 의견을 모아 소식지에 반영하고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리려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층
tel. 02-776-1314 fax. 02-754-5636
www.caritasseoul.or.kr/bokji

0 4 5 3 7

보내시는 분

우 편 엽 서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요금
발송유효기간
2013.04.20 ~ 2017.04.19
서울중앙우체국
승인 411208